

形態와 意味의 同形的(非恣意的) 分析理論과 그 適用*

——韓·佛語의 名詞化(連結-/終結化)를 中心으로——

朴 亨 達

(言語學科 教授)

서 론

본 研究의 方法論적 土臺와 固有한 方法論의 定立 :

Guillaume의 心理/精神力學論(Psychomechanics of Language)에서 말하는 F(형태)와 M(의미)사이의 역 방향적 思考運動 形態(incidence)(이하 ‘同形’으로 통일함)의 기본가설에서 시작하여, G.의 心理/精神力學論의 연구 단계를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연구단계를 초월한 보다 상위의 잠재적 단계를 설정하고 거기로 부터 출발하여 G.의 ‘구체적’이라고 특징지어지는 연구단계를 재정리 함으로써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G.의 단계)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G.의 “구체적” 연구단계의 정위치가 명확히 들어난다. 만일에, 상위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G식 구체적 단계의 태두리에서 맴돌게 되면 그러한 연구경향은 지나치게 개별적 사실을 설명함에 그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개별적 사실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따라서 G.식 연구단계를 “구체적이면서 추상을 지향하는 이원론적 이상주의”라고 비판하고, 본연구에서와 같이 ‘상위적 잠재적단계’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이면서 그것을 추상과(으로) 混同(착각)한”(뒤 “결론”: “phi潛재〔理論〕 단계”的 그림 이하 참조) G.식(구체적) 단계를 바라봄이 없이 오직 구체적인 것으로서만 재평가하고, 새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경향도 생겨날 수가 있다.¹⁾

위와 같은 경향을 지양하고 G.식 연구단계의 본질을 파헤쳐서 그 단계를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자리매김된 단계를 토대로하여, 보다 상위적, 잠재적 단계를 설정하여, “상위-하위” 단계를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언어사실의 分析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體系를 정립한것이 본 研究의 方法論적 土臺와 본 연구 固有의 方法論이라 할 수 있다.

본 研究의 對象(佛語와 韓語의 名詞化:連結/終結化) :

본 연구의 부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위에서 결론지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 방법론을 현대 佛語와 현대 韓語의 ‘連結(어미)化’와 ‘終結(어미)化’ 현상을 ‘名詞

* 이 논문은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선경학술연구비/S.N.U. Sunkyong Research Fund)에 의한 연구논문임.

1) Maurice Toussaint(1972), ‘Vingt ans après ou Gustave Guillaume et la neurolinguistique analytique’, in *Revue Romane*(VII, I), Copenhague, pp. 68-89 참조.

化’라는 이름밑에 통일시켜서 관찰 정리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정립된 이론을 실제언어로 연장(적용)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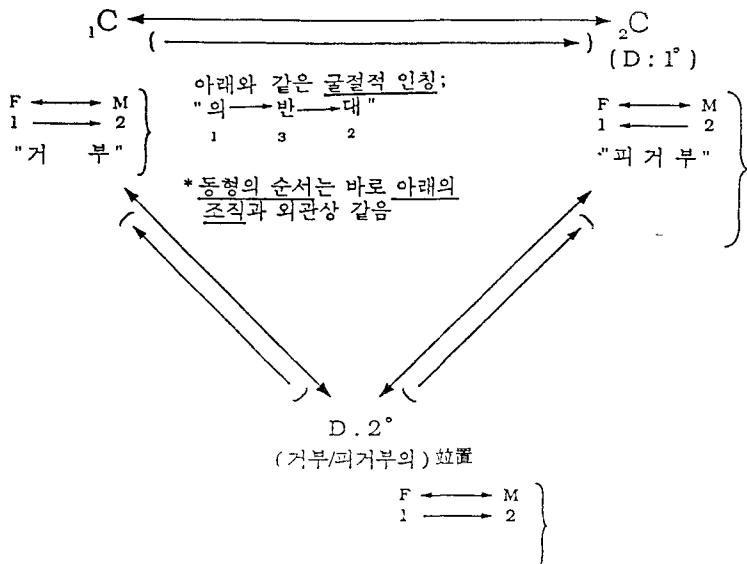
“名詞化”(連結/終結化)란? :

G의 心理/精神力學論의 출발점이 되는 品詞理論에서 同形의 ‘첫째순서’는 名詞이다. 즉 명사가 갖는 意味 내지 質料(matter: 이하 M로 표시함)과 그 形態(form: 이하 F로 표시함) 사이에는 連續性(이하 C로 표시함)이란 관점에서 ‘順位 1’에 해당된다. 佛語의 性, 數, 冠詞와 같은 形態(F)와 名詞(M) 사이에는 (예 : une/la femme(여성) : hommes(복수) : le/un matin (판사+명사)) 純粹한 連續性이 인증되어 여타의 요소의 도움이 없이 홀로 形態와 意味(M)의 同形(incidence)이 성립된다. 의미(M)와 형태(F)의 연속성을→로 표시하면 M→F와 같이 표시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韓語의 助詞 없는/있는 形態(F)와 名詞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순수한 連續적 同形이 성립된다(예 : 밥〈많다〉밥〈먹는다〉; 밥이/밥을). 반면 形容詞(M)나 動詞(M)는 그 자체의 意味(M)만이 있을뿐 形態(F)는 그 자체 밖에서 즉 명사(F)나 인칭 대명사(F)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예 : grand homme/homme marche); 마찬가지로 韓語의 관형사(M)(새, 몇, 어느)나, 형용사(M), 동사(M)는 그가 의지할 형태(F)로서 명사(F)를 요구한다(예 : 새 “집”/그사람 키 “크”다/ 나 그것 “먹”는다). 형태(F)를 의미(M)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형용사(M)나 동사(M)는, 명사(M)와는 달리 不連續적 同形을 이룬다. 의미(M)와 형태(F)의 不連續性을 ←로 표시하면 F←M과 같이 표시된다.

한편 副詞는, 형용사(M)내지 동사(M)와 명사(F)사이의 同形에 걸린다(예 : *très belle maison/l'homme marche vite*; 꽃이 곱게 피었다/밥좀 먹게 조용해라). 이 副詞 段階의 同形은, 첫째로 위 두 단계의 同形 : M→F/F←M 보다(F←M에 다시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具體化된 段階이며, 둘째로 위 두 상위관계와 같이 둘로 분석,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非分析적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 두 상위단계의 同形의 ‘併置(juxtaposé) 단계’라 할 수 있다. M→F/F←M의 병치를 하나로 표시하면 M→F로 표시된다. 위 두 상위단계 중에서 順序 1의 純粹 連續적 同形(M→F)을,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順序 2의 불연속적 同形을 지배내지 연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형태라 할 때, 順序 2는 順序 1에 의해서 “거부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順序 1을 連續 1로, 順序 2를 連續 2로 바꿔서 그 상위성을 나타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아래’ 참조).

아래 도식에서 名詞化(連結/終結化)란 어떤 위치(position)의 同形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답하는 것이 곧 名詞化(연결/종결화)의 내용이 된다. 아래 도식에서 맨위 원편의 연속1(순서1) 위치가 連續적 名詞化 段階 즉 명사(M)가 그 자체안에 형태(F)를 내유함으로써 적접적으로 그 둘 사이에 連續적 同形이 形成되는 段階(M→F)라면, 맨위 오른편의 連

分析적(連續적) 同形의 組織



* 주의 . $C_1 =$ 연속1/명사단계 · $C_2 =$ 연속2/형·동단계 : $D =$ 불연속/부사단계 \leftrightarrow : 분석(연속)적 동형
(사고운동 형태) \rightarrow : 연속성 : '↖↗' : 불연속성을, 각각 표시함.

續2(순서2) 위치는, 그와는 달리, 의미(M)로서의 형용사/동사가 그 自體안에서가 아니라 그 自體 밖에서 형태(F)를 찾음으로써, 그 둘 사이에는 직접적이 아닌 間接적, 不連續적 同形이 形成되는 段階($F \leftarrow M$)라 할 수 있다. 이 단계("형용사"/"동사"단계)가 位置1(연속1)의 "명사"단계에 대하여 순서상 位置2(연속2) 단계임은 곧 이 단계가 위치1(연속1)의 直接적連續적·'名詞化 段階'에 대하여 間接적·不連續적·'名詞化 段階'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同形 즉: 1) $M \rightarrow F$ 와 2) $F \leftarrow M$ 은 그 첫째 類型1)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잠재적(F) 단계 즉 '의미(M)의 도움을 기다리는' 단계임에 반해서, 그 둘째 類型2)는 구체화된(M) 단계 즉 잠재적 단계를 구체화시킴에 '도움을 주는' 단계라는 점에서, 다시 1)을 "연결적"/"피조동적"이라 부르고, 2)를 "종결적"/"조동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²⁾

예컨대, '수식-피수식' 관계에서 名詞化에 '역접'을 둔 단계(예: 먹는 것)는 위 첫째 類型1)의 " $M(\text{먹} \langle\text{는}\rangle : \text{의미적}/\text{종결적}/\text{조동적}) \rightarrow F(\text{것} : \text{형태적}/\text{연결적}/\text{피조동적})$ " 단계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形容詞化(冠形化)에 '역접'을 둔 단계(예: 먹는 밥)는 둘째 類型2)의 " $F(\langle\text{먹}\rangle \langle\text{는}\rangle \langle\text{밥}\rangle : \text{형태적}/\text{연결적}/\text{피조동적}) \leftarrow M(\text{먹} \langle\text{는}\rangle : \text{의미적}/\text{종결적}/\text{조동적})$ " 단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논지에 따르면 첫째 類型1)이 '直接적 名詞化' 즉 '연결(어

2) '連結形態' (forme préconclusive)/'終結形態' (f. conclusive)의 구분에 대해서는 Guillaume(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Québec/Paris, p. 198 참조.

미)화’의 예임에 반하여, 둘째類型2)는 ‘間接적 名詞化’ 즉 ‘종결(어미)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名詞化(連結化/終結化)”와 그것의 傳統言語學적 觀點과의 差異：

그리면 M(의미)과 F(형태)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 즉 :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의 존재를 인정하는 Guillaume의 心理/精神力學論적 觀點과 傳統言語學적 觀點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후자는 M(의미)와 F(형태)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의 결여’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명사화의 경우엔 형용사화(관형화)의 경우엔 M(의미) : 형용사/동사 : <먹>는/먹<는>라는 中心에다 F형태/명사성 : -것 또는 형용사성 : <먹>는 <밥>)을 각각 添加한 것으로 따로 따로 봄으로써, F와 M사이의 異(逆)方向적 同形이 결여된 M중심의 F의 첨가만이 존재하는 ‘等方向’적 관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異(逆)方向적 관점에서와 같이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에서 順序(2): $F \leftarrow M$ 를 順序(1): $M \rightarrow F$ 즉 名詞化의 異(逆)方向적 同形의 延長으로 보지 않고, 1) 명사화와 2) 형용사화(관형화)를 M(動詞)를 중심으로하여 F(名詞化 要素/形容詞化 要素)들이 각각 따로 따로 모였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문법에서 “명사화요소” 또는 “형용사화요소”(관형형), 그리고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라는 용어만이 존재하고 그들 용어사이에 오직 意味적인 連結(斷節)만이 存在함은,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M(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이 等方向적 觀點은, $M(1) \rightarrow F(1)$, $M(2) \rightarrow F(2)$, … $M(n) \rightarrow F(n)$ (무한히 계속됨)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뒤 : 註 3 참조).

위에 설명한 바로부터 본 연구에서 다루는 名詞化(連結化/終結化)란 M(의미)중심의, 그것과 F(형태)와의 等方向적 觀點 즉 “ $M(1) \rightarrow F(1)$, $M(2) \rightarrow (2)$, … $M(n) \rightarrow F(n)$ …”으로 무한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名詞化/形容詞化가 아니라, 1) $M \rightarrow F$ /2) $F \leftarrow M$ 과 같이 M(의미)와 F(형태)사이에 인정되는 異(逆)方向적 同形 즉 ‘名詞化’라는 ‘하나의’ 同形의 ‘連續’으로서의 ‘名詞化 또는 連結化’ / ‘形容詞化 또는 終結化’ 현상임을 분명히 알수가 있을 것이다.

본 론

“名詞化”的 두 段階(“潛在적/一般形態論적 名詞化”와 “實現적/具體적/意味·統辭論적 名詞化”) - :

“名詞化”(連結化/終結化)의 두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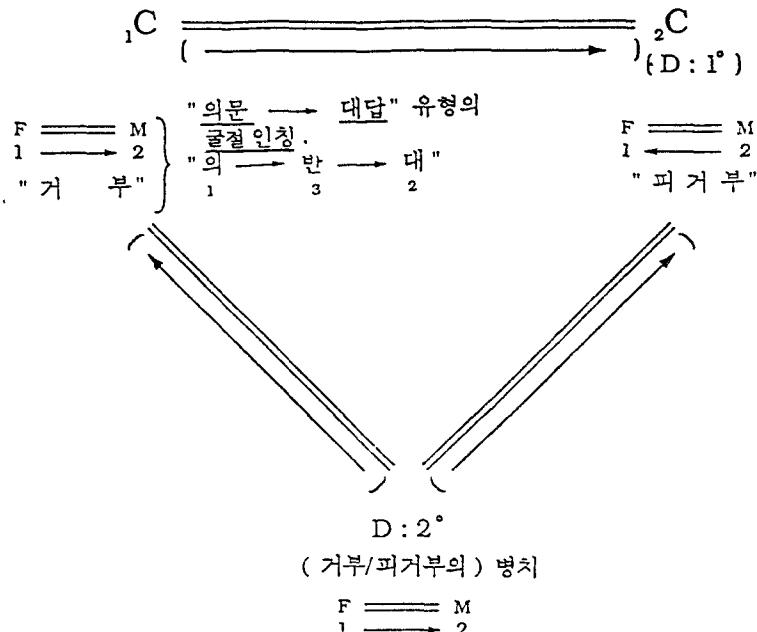
첫째(具體的)段階: 지금까지 설명해온 異(逆)方向적 觀點에서의 名詞化(連結化/終結化)는 기호로 표시하면 1) $M(\text{의미}) \rightarrow F(\text{형태})$ /2) $F(\text{형태}) \leftarrow M(\text{의미})$ (*엄격히는 ‘ $M \leftarrow F$ ’ : 뒤 ‘결

론'：“구체 단계” 그림 참조였다. 그리고 이 단계는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라고 특정지어질 수 있음은 이미 위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말 할 수 있을까? 바로 위에서 傳統言語學적 관점으로 표시하는 마당에서 “M(의미)를 중심으로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等方向적 관점”이라 요약한 바 있고 또 그것을 “ $M(1) \rightarrow F(1)$, $M(2) \rightarrow F(2)$, … $M(n) \rightarrow F(n)$ (무한히 계속됨)”과 같이 공식화 한바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 언어학적 관점이란 “M(의미)를 중심으로하여 F(형태)를 설명하는 慮意적(等方向적) 관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M(의미)란 가장 구체적인 단계의 品詞라 할 수 있는 動詞(또는 形容詞)를 말함은 물론이다. 즉 “가장 구체적인 M(의미)로서의 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등방향적/자외적/논리적/첨가적으로 F(형태)로서의 명사와 M(의미)로서의 동사/형용사를 설명함으로써, M(의미)와 F(형태)사이에는 오직 “意味적인 斷絕(恣意性)”만이 있게 되는 것이다.³⁾

이와 대비시켜서, M(의미)와 F(형태)의 異(逆)方向적 “具體적(意味·統辭적)”段階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구체적인 M(의미)로서의 動詞/形容詞의 데두리 안에서, 그것(M)과 F(형태)로서의 명사를 설명함으로써, M(의미)와 F(형태)사이에는 오직 “形態적(必然적) 同形적 連續

[비 분석적(불 연속적) 同形의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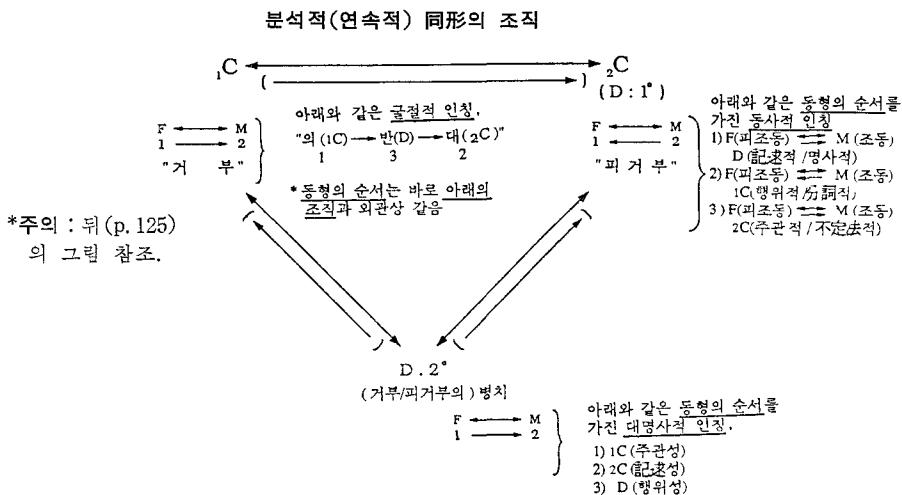


3) 이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狹意의 부분적 순서” <ordre strict partiel>에 해당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an Claude Chevalier(1978), *Verbe et Phrase*, Éditions Hispanique, p. 12 참조.

만이 있게 되는 단계”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바로 위와 같다(*주의：“=” 표시는 F와 M이 非分析된 具體(意味・統辭)段階의 同形(incidence) 표시임; 1/2/3: 同形의 순서; 위의 (1) M→F/(2) F←M 표시는 “=” 표시를 사용하고, M를 모두 원편에 표기 가능함.
*→: 연속적 운동: ↗↖: 불연속적 운동 1C/2C/D: 1연속/2연속/불연속).

이 단계가 바로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潛在的/一般形態論的)段階: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즉 ‘구체 단계’)를 초월한 ‘잠재적 단계’란 무엇인가? 이는 곧 ‘의문-반문-대답’이라는 ‘언어활동의 기본적 틀’을 출발점으로 하되, 위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와 같이 動詞/形容詞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屈折어미’를 시발점으로 하는 F(형태)와 M(의미)의 異(逆)方向적 同形의 組織을 말한다. 긴 설명을 할 필요없이 위에서 이미 사용된 그림을 다시 이용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시는 “분석적” 同形을 표시함; *→; 연속적 운동; ↗↖: 불연속적 운동; 1/2: 同形의 순서; C=연속, D=불연속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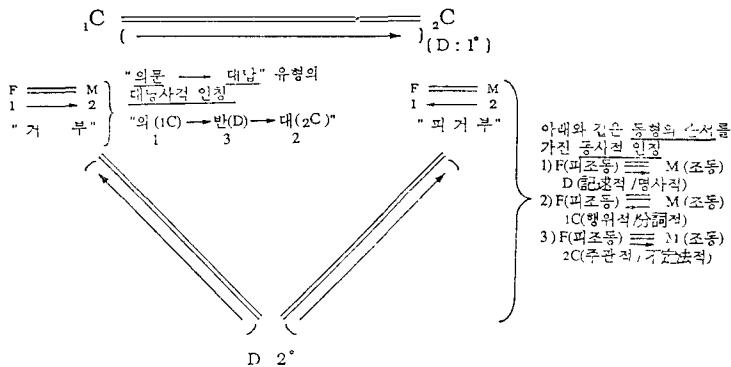
이 潛在적段階와 대비시켜서, 이미 위에서 사용된 도식을 다시 이용하여,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를 표시하면 아래(*p. 125의 그림)와 같다.

위 그림의 說明: 둘째 번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정립된 潛在적(一般形態論적)段階 즉 ‘言語(langue/tongue)’ 단계의 그림이며, 첫 번째의 그림은 Guillaume의 “구체적(의미・통사적)”(병치적) 단계를 再構한 단계 즉 ‘言語表現(discours/discourse)’ 단계의 그림이다. 그러면 이 潛在적(一般形態論적)言語와 實現적(意味・統辭적)言語言 사이에서 ‘G.의 단계’를 어떻게 연결 내지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Guillaume의) ‘具體적段階’란 精神적인 것(mental)의 物理적인 것(physique)

[비 분석적(불연속적) 同形의 조작]

$M \equiv F$ $1 \rightarrow 2$ \parallel $F \equiv M$ $1 \leftarrow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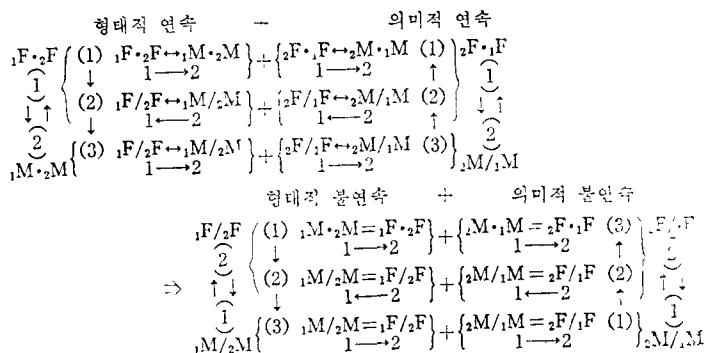
“ ${}_2C$ 가 D 와 분명히 구별되는 위의 分析적 組織과는 달리, 이 非分析적 組織은, 단일에 앞 뒤한 조건에서는, 한편으로는 意味적 優先權(一次적 同形의 順序) ($M \equiv F$)을 ‘主張’ 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形態적 優先權 ($F \equiv M$)을 ‘主張’ 할 수가 있게 된다.”



(거부/거부의) 병치

$F \equiv M$ } 다음과 같은 同形의 順序를 가진 代名詞적人稱*:
 $1 \rightarrow 2$ } 1) ${}_1C$ (주관성) 2) ${}_2C$ (記述性) 3) D(행위성)

* 위 同形의 순서의 實質內容은 다음과 같은 “연속”→“불연속”의 “不連續化”로 일어짐:
 일반 형태론적 同形의 조작 의미·통사론적 同形의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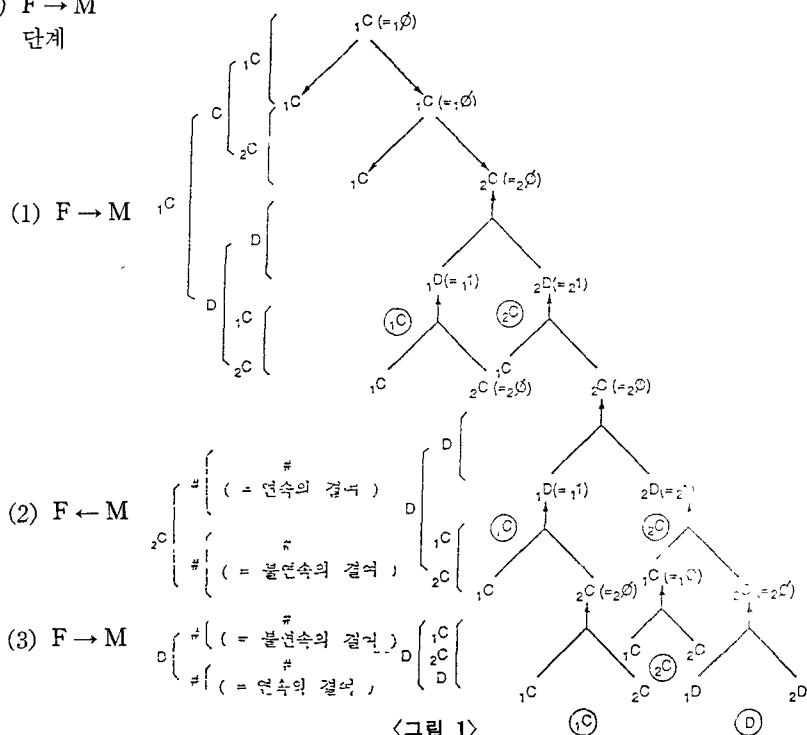
*주의: “.”: “연속”; “/”: “불연속” 표시임; 뒤 ‘결론’: “ ${}_1$ 참재(${}_2$ 참재)/구체단계” 그림 참조.

과의 충돌에서(에 대항한 투쟁의), 物理적 사실속에 남은 可視적인 흔적이며, 이 物理적·可視적 흔적은, ‘구체적 사실’에 ‘置重’한 남아지 그것을 “참재적 言語단계”로(와) 誤認(混同)한 ‘假(pseudo)言語 내지 假言語表現’ 단계이며, 따라서 ‘非可視적·精神적 潜在體로서의 言語’를 전제로 하는 ‘言語表現’으로 ‘再構’ 내지 ‘편입’되어야 한다.⁴⁾

4)拙稿(1991): ‘核(形態)과 非核(意味)의 同形의 分析理論의 定立에 관하여’, 人文論叢(26), pp. 134-137에서 “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의 公式 (“//”표시로 된 非分析적/“1”적 <非φ적> 公式) 을 먼저 순서로 놓고, 그 다음에 “참재적(일반형태론적)” 단계의 公式(“↑”표시로 된 分析적 “φ”적 公式)을 그 다음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였음. 또拙稿(1988),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人文論叢(20), pp. 175-237 참조.

(I) 일반형태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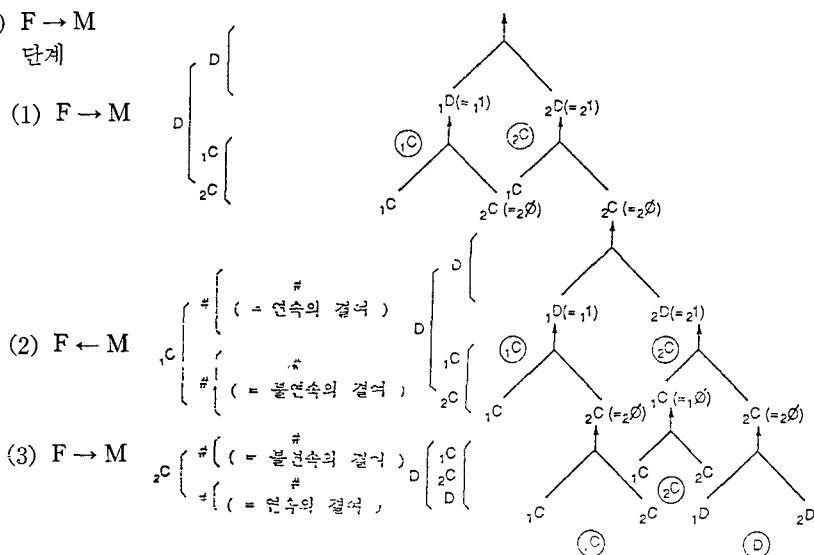
(I) $F \rightarrow M$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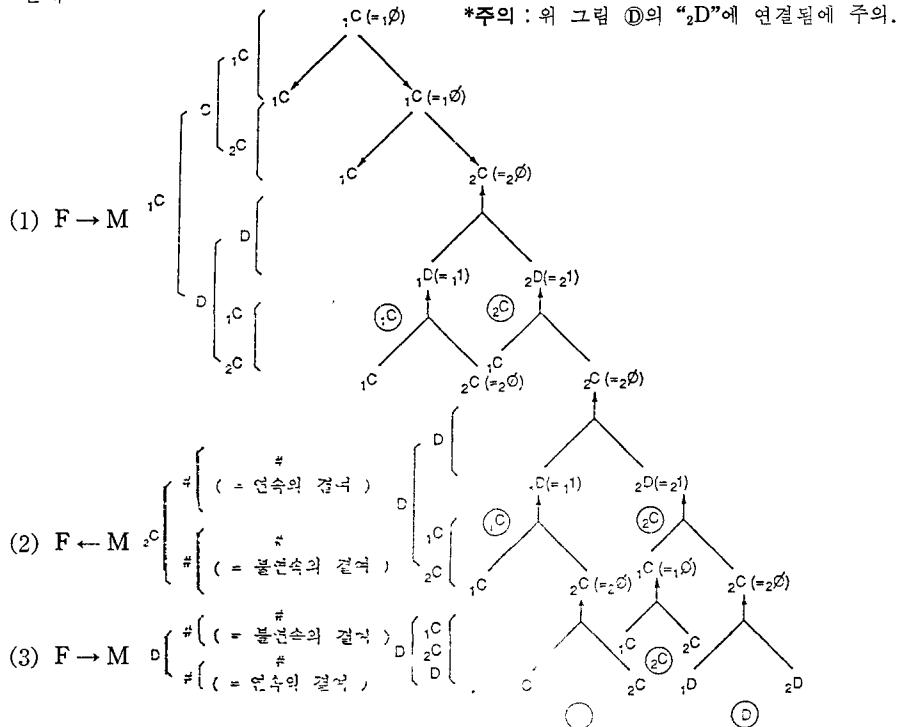
(I) 일반형태론 (II)

*주의 : 위 그림 ①의 “ $2D$ ”에 연결됨에 주의.

(II) $F \rightarrow M$
단계



(I) 일반형태론 (III)

(III) $F \rightarrow M$
단계

<그림 3>

위 두 단계의 다른 圖式化- : 위 두 그림을 다시 나무 그림으로 표시하면 보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swarrow \searrow$ 는 ‘연속성/전망성’을 ↑는 ‘불연속성/회고성’을 각각 표시함)⁵⁾.

1) 잠재적/일반형태론적 / ‘一般→特殊’ 적 언어 단계 (langue/tong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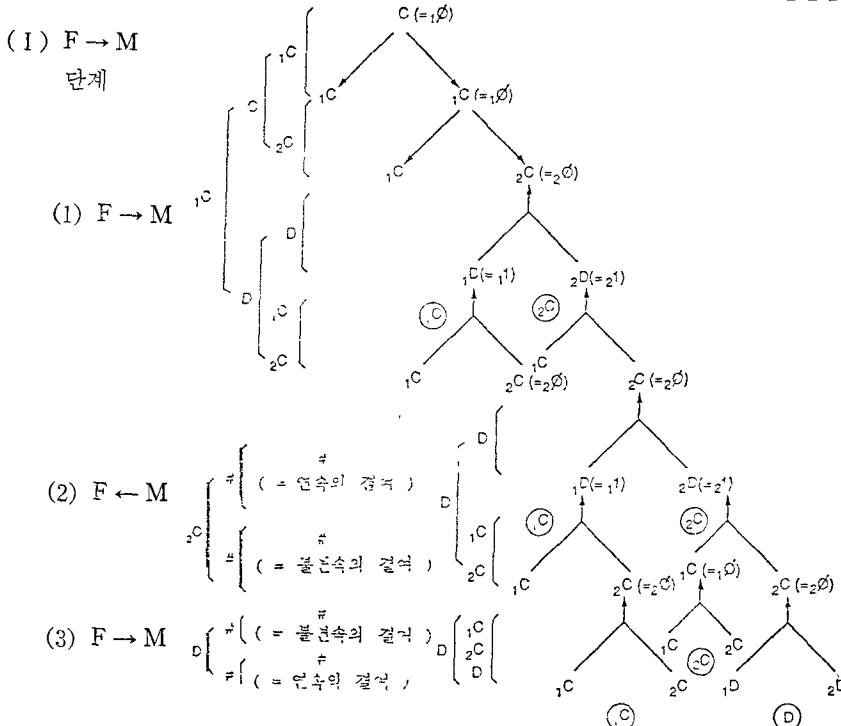
이 단계를 나타낸 위 나무그림은 : 1)拙稿(1991):pp. 136-137의 公式을, 2) 본 논문의 아래(*韓語의 公式)와 같이 들어서 再表記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그림이다. 1)의 公式表記가 “ ${}_1C/{}_2C$ (${}_1$ 連續/ ${}_2$ 連續) $\rightarrow D$ (不連續)”라는 ‘大體系의 表記’라면 2)의 公式表記는 1)의 大體系의 表記들, 그것이 포함 내지 암시하는 ‘小體系’까지를 포함 내지 구체화시킨 ‘구체적 表記’이다(* (I)/(II)/(III) : 大體系; (1)/(2)/(3) : 小體系를 표시함).

형태(F)와 의미(M)의 同形(incidence)을 ‘非恣意의인 同形(synapse/synapsis)’ 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쓸 때, 이 同形은 다시 그 자체를 형태(F)와 의미(M)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형태(F)로서의 同形’이란 同形을 구성하는 형태(F)가 순서상 언제나 의미(M)보다

5) “疑問(${}_1C$) \rightarrow 反問(D) \rightarrow 대답(${}_2C$)”, 즉 公式으로는 “ ${}_1U - ({}_1\phi) \rightarrow ({}_2S \rightarrow {}_1S) - ({}_2\phi) \rightarrow {}_2U$ ”로 표시되는 同形의 조작의, 기계적인 말로의 표현에 관해서는, 拙稿(1991), pp. 129-130 참조.

(II) 통사론(I)

*주의: 위 그림 ①의 “ $_2D$ ”에 연결됨에 주의.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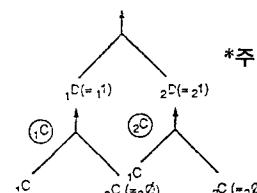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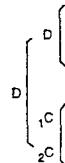
‘먼저 位置’에 온다는 ‘同形의 기본적인 틀’ 즉 ‘형태/꼴격’을 말하고, ‘의미(M)로서의 同形’이란 그 ‘기본적인 틀/형태’의 ‘실질내용’ 즉 1) 1연속적= $_1C$ 적($F \rightarrow M$)이거나, 2) $_2C$ 적($F \leftarrow M$)이거나, 3) 불연속/並置적=D적($F \rightarrow M$)이거나라는 ‘同形의 의미내용’ 다시 말해서 ‘의미 내용상의 순서’ 즉 위 “1)/2)/3)”의 同形 각각에서 형태(F)와 의미(M)를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에 따르는 순서’ ($F<1>\rightarrow M<2>/F<2>\leftarrow M<1>/F<1>\rightarrow M<2>$)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1) ‘형태(F)로서의 同形’과 2) ‘의미(M)로서의 同形’은, 이들을 더 구체화시킨 ‘小體系’를 예상할 때, ‘大體系’적 관점에서 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大體系적으로 보아진 小體系’에 있어서는, 이들 “1)/2)/3)”의 同形을 형태(F)와 의미(M)로 나눈 것을 ‘하나’로 잡아서 이것을 ‘형태(F)/꼴격’ 즉 ‘형태적 순서’로 파악하고, 그에 각각 대응되는 ‘실질내용/의미내용상의 순서’를 ‘다른 하나’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아진 小體系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_1C/_2C$ ”의 “/” 표시는 ‘意味的 同形의 順序’ 안에서의 ‘形態的 順序’를, “ $_1C/_2C \rightarrow D$ ” 또는 “ $D \rightarrow _1C/_2C$ ”의 “→” 표시는

(II) 통사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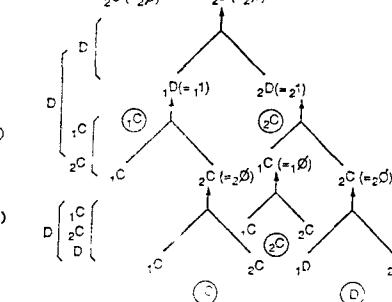
(II) $F \leftarrow M$

단계

(1) $F \rightarrow M$ 

*주의: 위 그림 ①의 “ ${}_2D$ ”에 연결됨에 주의.

(2) $F \leftarrow M$

$$\begin{cases} # \\ # \\ (= 연속의 결여) \\ (= 불연속의 결여)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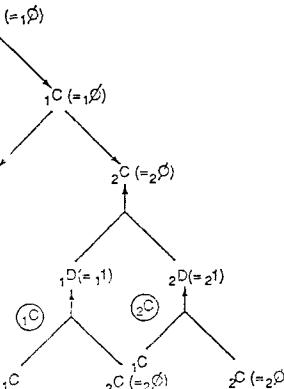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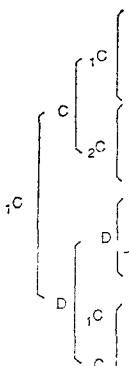
$$\begin{cases} # \\ # \\ (= 불연속의 결여) \\ (= 연속의 결여) \end{cases}$$

<그림 4>

(II) 통사론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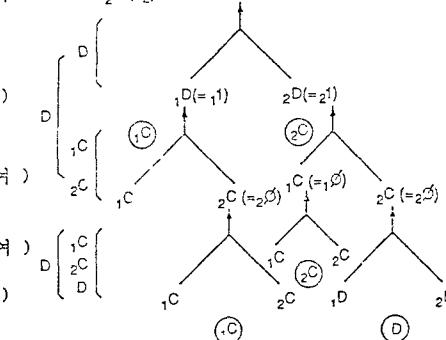
(III) $F \rightarrow M$

단계

(1) $F \rightarrow M$ 

*주의: 위 그림 ①의 “ ${}_2D$ ”에 연결됨에 주의.

(2) $F \leftarrow M$

$$\begin{cases} # \\ # \\ (= 연속의 결여) \\ (= 불연속의 결여) \end{cases}$$
(3) $F \rightarrow M$

$$\begin{cases} # \\ # \\ (= 불연속의 결여) \\ (= 연속의 결여) \end{cases}$$

<그림 6>

‘意味的 同形의 順序’ 안에서의 ‘意味內容上의 順序’를 가리킴 또 앞 p.125 그림 참조) :

(1) 大體系의 ${}_1C(F \righ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

형태 (F)적 同形의 순서 의미 (M)적 同形의 순서

즉 형태 (F)

즉 의미 (M)

- $$\begin{cases}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 \hline 2) \quad \{ 3) D(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cases}$$

(2) 大體系의 ${}_2C(F \lef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

형태 (F)적 同形의 순서 의미 (M)적 同形의 순서

즉 형태 (F)

즉 의미 (M)

- $$\begin{cases}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 \hline 2) \quad \{ 3) D(F \lef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cases}$$

(3) 大體系의 $D(F \rightarrow M)$ 단계를 그것이 포괄하는 小體系 즉 위 (1)의 小體系와 그 外形이同一한 (*뒤 pp. 131-132 참조) 그러나 위 (2)와는 그 의미 내용이同一하지 않은, 不連續的/並置的 小體系 즉 :

형태 (F)적 同形의 순서 의미 (M)적 同形의 순서

즉 형태 (F)

즉 의미 (M)

- $$\begin{cases} 1) {}_1C(F \rightarrow M) \text{ 단계 :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 2) {}_2C(F \leftarrow M) \text{ 단계 : } "D(D \rightarrow {}_1C/{}_2C)"; \\ \hline 2) \quad \{ 3) D(F \rightarrow M) \text{ 단계 : } "D({}_1C/{}_2C \rightarrow D)" \text{로,} \end{cases}$$

각각 구체화시킨 구체적 表記이다. 이 구체적으로 表記된 公式을 나무그림으로 옮긴 것은 이 곳 위의 ‘잠재적/일반형태론의 그림’이다. 그리고 이 단계의 그림의 큰 특징은 ‘형태 (F) 와 의미 (M) 的 連續性’(‘一般→特殊’)이라는 사실을 끝으로 덧붙여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의미·통사론적/‘特殊→一般’적 언어표현 단계 (discours/discourse) :

이 단계를 나타낸 나무그림의 특징은 위 1)의 ‘잠재적/일반형태론적 언어단계’의 그림의 특징인 ‘형태 (F) 와 의미 (M) 的 連續性’과는 달리, ‘형태 (F) 와 의미 (M) 的 不連續性’이다. 이때 ‘형태 (F) 的 不連續’은 ‘連續的 形態(F)’와 그 “外形이同一함”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바로 위의 (3) 大體系의 $D(F \rightarrow M)$ 단계가 포괄하는 小體系’項 참조). 그 반면에 ‘의미 (M) 的 不連續性’은 그 “내용의 非同一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바로 위 (2)와 (3)의 ‘의미적 순서’의 非同一性을 참조), (3)은 (2)의 ‘不連續化’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음을 또한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이 가리키는 ‘형태적 순서 + 의

미적 순서'의 連續性으로부터 그것의 不連續으로서의 '意味・統辭論의 나무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 즉 :

첫째로,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형태적 순서+의미적 순서)을 (不連續/並置的) '하나'로 잡고 그것을 그와 '外形이 同一한' 不連續의 意味・統辭論의 '형태(F)/글격' 즉 '형태적 순서'로 파악하고,

둘째로, 그에 각각 대응되는 '實質內容' 즉 '意味內容上의 順序'를 (不連續/並置的) '다른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이 '意味內容上의 順序'는,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을 구성하는 '形態的順序'와 '意味的順序' 중, 不連續 즉 具體에 속하는 '意味的順序'를 不連續化 즉 非同一化, 더 정확히는 '異(逆)方向化'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주의 위 (3)의 小體系의 '意味上의 順序'가 '形態上의 順序'와 '意味上의 順序'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意味上의 順序'라면, (2)의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意味上의 順序'라 할 수 있다. 즉 (3)의 첫째의 意味上의 順序: "C(₁C/₂C)→D(D→₁C/₂C)", 그리고 그에 이은 둘째와 셋째 順序가 形態(C)와 意味(D)를 '하나의 連續'으로 보았을 때의 '意味上의 順序'라면, (2)의 첫째의 意味上의 順序: "D(D→₁C/₂C)", 그리고 그에 이은 둘째와 셋째의 順序는 그 形態(C)와 意味(D)를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파악했을 때의 '順序'이다. 이때, 이 (2)의 '不連續的, 並置的 意味上의 順序'는 (3)의 첫째의 意味上의 順序를 구성하는 形態(C)와 意味(D)중, 不連續/具體에 속하는 意味(D)를 不連續化/非同一化 즉 '異(逆)方向化'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3)의 첫째 順序: "C(₁C/₂C)→D(D→₁C/₂C)"의 팔호 밖의 "C"와 "D" 중, "D" 즉 "(D→₁C/₂C)"가 "C" 즉 "(₁C/₂C)"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 順序가 뒤바뀌고 전자(D)가 후자(C)를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C(₁C/₂C)"가 없어지고 "D(D→₁C/₂C)"가 그 첫째의 으뜸 位置를 차지하는 "C"와 "D"의 順序上의 異(逆)方向化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곧 形態(F 또는 C)와 意味(M 또는 D)를 1) '하나/連續'으로 보느냐 2)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보느냐라는 二重性으로 특징지어지는 同形(incidence)의 根本的 定義와 그 취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一般形態論의 나무그림과 意味・統辭論의 나무그림의 外形이 같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를 다시 위 "(1)/(2)/(3)의 小體系"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두 그림의 形態・意味의 外形의 同一性은 위 두 小體系 (1)과 (3)의 同一性에 비교된다. 즉 (1)과 (2)를, (1)을 形態(F)로 (2)를 意味(M)로 하는 하나의 (=連續的) '一般形態論의 그림'으로 보고, 즉 (1)로 보고, 그 (1)과 (3)을 比較할 때의 同一性이고,

둘째로, 두 그림의 實質意味內容의 非同一性은 위 두 小體系 (2)와 (3)의 非同一性에 비교된다. 즉 (1)과 (2)를 '하나로(連續的으로)' 보지 않고 '따로 따로(並置的/不連續的으로)' 보았을 때의 (1) 즉 (2)와, (3)의 比較에서의 非同一性이다.

따라서, (3)은 (1)과 (2)를 '하나의 連續的一般形態論의 그림'으로 본 (1)과 그 '形態・意味의 外形'이 同一하면서도, (1)과 (2)를 不連續的으로 본 (1) 즉 (2)와는 그 '實質意味內容'이 다르다는, 즉 '異(逆)方向的'('特殊→一般'의 : 뒤 p.161 註1 참조)이라는, 二重性

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二重性’을 지닌 (3)이 바로 意味・統辭論의 나무 그림의 正體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二重性’을 지닌 ‘不連續的 意味・統辭論의 그림’과 ‘連續的一般形態論의 그림’과의 관계를 앞의 ‘(1)/(2)/(3)의 小體系’를 이용해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다:

(1) ${}_1C(F \rightarrow M)$ 단계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 1) ${}_1C(F \rightarrow M)$: “ $C({}_1C/{}_2C) \rightarrow D(D \rightarrow {}_1C/{}_2C)$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
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2) ${}_2C(F \leftarrow M)$: “ $D(D \rightarrow {}_1C/{}_2C)$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
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3) $D(F \rightarrow M)$: “ $D({}_1C/{}_2C \rightarrow D)$ ”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
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 *위 ‘一般形態論’ 1)/2)/3)의 意味(M)
의 公式과 外形이 同一한 公式的 테두
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
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위 ‘一般形態論’ 1)/2)/3)의 公式과 內
容이 同一하지 않은 (異(逆)方向의) 公
式的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
(指
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이것을 더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意味(M)의 公式 1)은 팔호밖의 것(C 및 D)을, 2)와 3)은 팔호 안의 것 (“ $D \rightarrow {}_1C/{}_2C$ ” 및 “ ${}_1C/{}_2C \rightarrow D$ ”)을 취하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과 “2”를, 一般形態論과 意味・統辭論에 공통되는 ‘連續性/不連續性’은 異(逆)方向의 화살 표시 ‘ \rightarrow/\leftarrow ’를, 그 양자(形態論/統辭論)를 구별하는 ‘連續性/不連續性’은 위 화살표시 위에다 ‘ $\leftrightarrow/=\rightleftharpoons$ ’ 표시 (‘ $\leftrightarrow/\leftarrow\rightleftharpoons$ ’과 ‘ $=\rightleftharpoons/\leftrightarrow$ ’)를 사용하여 公式으로 나타내면 (“ \Rightarrow ” 표시는 ‘不連續化’를 나타냄) :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形態(F)

意味(M)

$$1) {}_1C(F \rightarrow M)$$

$$\begin{matrix} C & \rightleftarrows & D \\ 1 & & 2 \end{matrix}$$

$$\Rightarrow$$

$$\begin{matrix} C & \rightleftarrows & D \\ 1 & & 2 \end{matrix}$$

$$\begin{matrix} D & \rightleftarrows & C \\ 1 & & 2 \end{matrix}$$

$$2) {}_2C(F \leftarrow M)$$

$$\begin{matrix} D & \rightleftarrows & {}_1C/{}_2C \\ 1 & & 2 \end{matrix}$$

$$\Rightarrow$$

$$\begin{matrix} D & \rightleftarrows & {}_1C/{}_2C \\ 1 & & 2 \end{matrix}$$

$$\begin{matrix} {}_2C/{}_1C & \rightleftarrows & D \\ 1 & & 2 \end{matrix}$$

$$3) D(F \rightarrow M)$$

$$\begin{matrix} {}_1C/{}_2C & \rightleftarrows & D \\ 1 & & 2 \end{matrix}$$

$$\Rightarrow$$

$$\begin{matrix} {}_1C/{}_2C & \rightleftarrows & D \\ 1 & & 2 \end{matrix}$$

$$\begin{matrix} D & \rightleftarrows & {}_2C/{}_1C \\ 1 & & 2 \end{matrix}$$

(2) ${}_2C(F \leftarrow M)$ 단계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 1) ${}_1C(F \rightarrow M)$: “D(D → ${}_1C / {}_2C$)”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 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2) ${}_2C(F \leftarrow M)$: “D(D → ${}_1C / {}_2C$)”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 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 3) D(F → M) : “D(${}_1C / {}_2C \rightarrow D$)”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 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위 ‘一般形態論’ 1)/2)/3)의 意味(M)
의 公式과 外形이 同一한 公式的 테두
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위 ‘一般形態論’ 1)/2)/3)의 公式과 內
容이 同一하지 않은 (異逆)方向의 公
式의 테두리 안에 드는 나무그림의 ‘頂點
(指示) — 非頂點(被指示)’의 順序.

앞 (1)의 예에 따라 “一般形態論 ⇒ 意味・統辭論”的 ‘不連續化’를 公式으로 단순화 시켜
서 나타내면 :

(一般形態論的) 同形의 組織

(意味・統辭論的) 同形의 組織

形態(F)	意味(M)	形態(F)	意味(M)
1) ${}_1C(F \rightarrow M)$	$D \leftrightharpoons {}_1C / {}_2C$ ⇒ $D \equiv {}_1C / {}_2C$	$D \equiv {}_1C / {}_2C$	${}_2C / {}_1C \equiv D$
2) ${}_2C(F \leftarrow M)$	$D \leftrightharpoons {}_1C / {}_2C$ ⇒ $D \equiv {}_1C / {}_2C$	$D \equiv {}_1C / {}_2C$	${}_2C / {}_1C \equiv D$
3) D(F → M)	${}_1C / {}_2C \equiv D$ ⇒ ${}_1C / {}_2C \equiv D$	${}_1C / {}_2C \equiv D$	$D \equiv {}_2C / {}_1C$

(3) $D(F \rightarrow M)$ 단계

*앞 (1)과 그 外形이 同一함.

*앞 (1)과 (2)의 예에 따른 “一般形態論 ⇒ 意味・統辭論”的 ‘不連續化’의 단순화된 公式
으로의 표시도 앞 (1)과 그 外形이 同一함.잠재적 언어단계(**langue**)에 있어서의 현대 韓語의 전체적 분석 - :

佛語나 韓語나 모두 이 잠재적 단계에서의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인데, 우선 현
대 韓語를 전체적으로 분석 표시하고, 이것을 전제 내지 트대로 하여, 오직 “구체적 假言
語表現” 단계에서만 연구된 佛語의 명사화라는 同形과 그에 대응되는 韓語의 명사화(연
결화/종결화)라는 同形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이로부터 출발하여 韓/佛 양 언어의 명사화

(연결화/중결화)라는 同形이, ‘잠재적 분석적/연속적 同形적 조작’(mécanisme synaptique analysé/continu)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position)를 밝히고, 아울러서 ‘구체적(비분석적/불연속적) 同形적 조작’안에서 차지하는 ‘위치’(position)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현대 韓語의 “잠재적(분석적/연속적) 조작”을 실제 언어의 예로써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의 : * (I)/(II)/(III) : 大體系; (1)/(2)/(3) : 小體系를 표시 함; 각각의 둘째줄 公式은拙稿 (1991/1992), p. 135/p. 54에 의 함.

* 아래 略字의 내용은 모두 ‘形態위주’의 ‘意味・內容’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

* 아래 公式的例의 “註”는 뒤 p. 161 이하를 참조.

V_s =주관동사	\hat{e} =“이 다”<指定詞>	Q =의문
V_d =記述동사	\hat{E} =“있다”<存在詞>	R =대답
V_{act} =동작동사	(ϕ) =매듭 ‘零’	R_q =反問
A_x =조동사	(1)=매듭 ‘有’	Pers. act.=行動 人稱
$A_{xé}$ =被조동사	f=屈折形態	tu/je=屈折人稱
#=不在적 연속적 同形=불연속적/質料적 同形=“빈칸”		

(I) $F \rightarrow M$ 단계 $_1$ 連續($_1C$)의 同形(synapse)

(= $_1$ 内部的 同形)

同形의 順序

(1) $F \rightarrow M$: (1)

$$\left\{ \begin{array}{l} 1-1) \quad _1C: " _1U - (_1\phi) \rightarrow (_2S \rightarrow _1S) - (_2\phi) \rightarrow _2U " \\ 1-1) \quad _1C: " _1Q - (_1\phi) \rightarrow (_2R_q \rightarrow _1R_q) - (_2\phi) \rightarrow _2R " \end{array} \right.$$

Q =지시사=-야(으)으? ¹⁾

R =지시사= ϕ

$(_1R_q)$ =(과지시사)= (ϕ)

$(_2R_q)$ =(과지시사)= (ϕ)

$$\left\{ \begin{array}{l} 1-2) \quad _2C: " _2U - (_2\phi) \rightarrow (_1S \rightarrow _2S) - (_1\phi) \rightarrow _1U " \\ 1-2) \quad _2C: " _2R - (_2\phi) \rightarrow (_1R_q \rightarrow _2R_q) - (_1\phi) \rightarrow _1Q " \end{array} \right.$$

R =지시사=-어/-야.

Q =지시사= ϕ

$(_1R_q)$ =(과지시사)= (ϕ)

$(_2R_q)$ =(과지시사)= (ϕ)

$$\left\{ \begin{array}{l} 2-1) \quad D: " _1U - (_1l) \rightarrow (_2S \bullet _1S \rightarrow _1S \bullet _2S) - (_2l) \rightarrow _2U " \\ 2-1) \quad D: " _1\hat{e} - (_1l) \rightarrow (_2\hat{E} \bullet _1\hat{E} \rightarrow _1\hat{E} \bullet _2\hat{E}) - (_2l) \rightarrow _2\hat{e} " \end{array} \right.$$

$_1\hat{e}$ =(呼稱<格>)지시사=으! ²⁾

$_2\hat{e}$ =지시사= ϕ

$(_1\hat{E})$ =(과지시사)= (ϕ)

$(_2\hat{E})$ =(과지시사)= (ϕ)

$$\left\{ \begin{array}{l} 2-2-1) \quad _1C: " _1U - (_1l)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_2l) \rightarrow _2U " \\ 2-2-1) \quad _1C: " _1tu - (_1l) \rightarrow (_2je \cdot _1je \rightarrow _1je \cdot _2je) - (_2l) \rightarrow _2je " \end{array} \right.$$

$tu = (\text{自問적}) \text{지시사} = -나/-가 ?$

$je = (\text{지시자}) \phi$

$(_1je) = (\text{피지시자}) = (\phi)$

$(_2je) = (\text{피지시자}) = (\phi)$

$$\left\{ \begin{array}{l} 2-2-2) \quad _2C: " _2U - (_2l) \rightarrow (_1S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S) - (_1l) \rightarrow _1U " \\ 2-2-2) \quad _2C: " _2je - (_2l) \rightarrow (_1je \cdot _2je \rightarrow _2je \cdot _1je) - (_1l) \rightarrow _1tu " \end{array} \right.$$

$je = (\text{지시자}) = -어/-아 (대답적 지시자)$

$tu = (\text{지시자}) \phi$

$(_1je) = (\text{피지시자}) = (\phi)$

$(_2je) = (\text{피지시자}) = (\phi)$

$_2$ 連續($_2C$)的 同形

($=_2$ 內部的/外部的/不連續 1度($_1D$)的 同形)

同形의 順序

(2) $F \leftarrow M:$ (2)

$$\left[\begin{array}{l} \# \\ (= \text{不在的} \text{ 連續})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1) \quad D: "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1) \quad D: " _2Vd - (_2l) \rightarrow (_1\# \cdot _2\hat{E} \rightarrow _2\hat{E}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array} \right.$$

$Vd = (\text{지시자}) = -지 (肯定 대답 期待의 지시자)$

$\# = (\text{지시자}) \phi$

$(E) = (\text{피지시자}) = (\phi)$

$(\#) = (\text{피지시자}) = (\phi)$

$$\left\{ \begin{array}{l} 2-1) \quad _1C: "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2-1) \quad _1C: " _2Axé - (_2l) \rightarrow (_1\# \cdot _2f \rightarrow _2f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array} \right.$$

$Axé = (\text{지시자}) = -어/-아 (대답적 지시자)$

$\# = (\text{지시자}) \phi$

$(f) = (\text{피지시자}) = (\phi)$

$(\#) = (\text{피지시자}) = (\phi)$

$$\left\{ \begin{array}{l} 2-2) \quad _2C: "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2-2) \quad _2C: " _1Ax - (_1l) \rightarrow (_2\# \cdot _1f \rightarrow _1f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array} \right.$$

$Ax = (\text{지시자}) = -냐고 (반문적 지시자)$

$\# = (\text{지시자}) \phi$

$(f) = (\text{피지시자}) = (\phi)$

$(\#) = (\text{피지시자}) = (\phi)$

不連續(D)的 同形

(=外部의/不連續 2度(2D)의 同形)

同形의 順序

(3) $F \rightarrow M:$

(3)

[# (不在의 連續)

$$\left\{ \begin{array}{l} 1-1) \ _1C: " _1U - (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1-1) \ _1C: " _11/2 \ pers. - (1l) \rightarrow (_2\# \cdot _1V_s \rightarrow _1V_s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array} \right.$$

 $_11/2 \ pers. =$ (疑問引用・連結의) 지시사=-나고(하더)

#=(대답 引用・連結의) 지시사=-어/-아(하더)

(Vs)=(〈위의 終結적〉 피지시사)=(하더)

(#=)(〈위의 終結적〉 피지시사)=(하더)

$$\left\{ \begin{array}{l} 2-1) \ _2C: " _2U - (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2-1) \ _2C: " _23e \ pers. - (2l) \rightarrow (_1\# \cdot _2V_d \rightarrow _2V_d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array} \right.$$

 $3^e \ pers. =$ (대답 引用・連結의) 지시사=-어/-아(하더)

#=(疑問引用・連結의) 지시사=-나고(하더)

(Vd)=(〈위의 終結적〉 피지시사)=(하더)

(#=)(〈위의 終結的〉 피지시사)=(하더)

$$\left\{ \begin{array}{l} 2) \ D: " _1U - (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2) \ D: " _1pers.act. - (1l) \rightarrow (_2\# \cdot _1Vact. \rightarrow _1Vact.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array} \right.$$

pers.act.=(〈疑問-대답〉의 並置적 引用・連結語尾形) 지시사=-지(알겠)

#=(〈疑問-대답〉의 並置적 引用・連結語尾形) 지시사=지(모르겠)

(Vact.)=(〈위의 終結語尾形〉 피지시사)=(-지 알)겠

(#=)(〈위의 終結語尾形〉 피지시사)=(-지 모르)겠

(II) $F \leftarrow M$ 단계 $_1$ 連續(1C)의 同形(= $_1$ 內部의 同形)

同形의 順序

(1) $F \rightarrow M:$

(1)

{ #
 (不在의 連續)

$$\left\{ \begin{array}{l} 2-1) \ D: " _1U - (1l)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2l) \rightarrow _2U " \\ 2-1) \ D: " _1\hat{e} - (1l) \rightarrow (_2\hat{E} \cdot _1\hat{E} \rightarrow _1\hat{E} \cdot _2\hat{E}) - (2l) \rightarrow _2\hat{e} " \end{array} \right.$$

 $_1\hat{e}$ =(主觀적 連結・時制語尾形) 지시사=-겠(다), -고있(다), -있/있(다), -ㄴ/ 는(다)… $_2\hat{e}$ =(非主觀적 連結・時制語尾形) 지시사=-겠(다), -고있(다), -있/있(다), -ㄴ/ 는(다)…

$(_1\hat{E}) = \langle \langle 어휘성 · 主觀적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알/모르-”$

$(_2\hat{E}) = \langle \langle 어휘성 · 非主觀적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먹/가-”\dots$

{ 2-2-1) $_1C: “_1U - (_1l) \rightarrow (_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_2l) \rightarrow _2U”$

{ 2-2-1) $_1C: “_1tu - (_1l) \rightarrow (_2je \cdot _1je \rightarrow _1je \cdot _2je) - (_2l) \rightarrow _2je”$

$tu = (\text{主觀적 目的語形}) \text{ 지시사} = (\text{이}/\text{그}/\text{저})\text{것}$

$je = (\text{非主觀적 目的語形}) \text{ 지시사} = (\text{이}/\text{그}/\text{저})\text{말, 사람}\dots$

$(_1je) = \langle \langle \text{主觀連結 · 時制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겠(다)/-고있(다)/-았(었)(다)/-(\phi)-\sim-\sim-\text{는}(다)\dots$

$(_2je) = \langle \langle \text{非主觀連結 · 時制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겠(다)/-고있(다)/-았(었)(다)/-(\phi)-\sim-\sim-\text{는}(다)\dots$

{ 2-2-2) $_2C: “_2U - (_2l) \rightarrow (_1S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S) - (_1l) \rightarrow _1U”$

{ 2-2-2) $_2C: “_2je - (_2l) \rightarrow (_1je \cdot _2je \rightarrow _2je \cdot _1je) - (_1l) \rightarrow _1tu”$

$je = (\text{主觀連結語尾形}) \text{ 지시사} = -고-/계-/아(어)-/-(\phi)\text{느-}$

$tu = (\text{非主觀連結語尾形}) \text{ 지시사} = “-고-/계-/아(어)-/-(\phi)\text{느-}$

$(_1je) = \langle \langle \text{主觀時制語尾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ㅆ-/으-/-(\phi)\text{ㄴ-}$

$(_2je) = \langle \langle \text{非主觀時制語尾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ㅆ-/으-/-(\phi)\text{ㄴ-}”$

$_2$ 連續($_2C$)的 同形

($=_2$ 內部의/外部의/不連續 1度($_1D$)的 同形)

同形의 順序

(2) $F \leftarrow M:$

(2)

[#
(=不在의 連續)

{ 1) $D: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1) $D: “_2Vd - (_2l) \rightarrow (_1\# \cdot _2\hat{E} \rightarrow _2\hat{E} \cdot _1\#) - (_1\#) \rightarrow _1\#”$

$Vd = \langle \text{連結적} \rangle \text{ 지시사} = (\text{먹})\text{고}(\text{말다}) / (\text{먹})\text{어}(\text{버리다}) / (\text{먹})\text{계}(\text{하}/\text{되다}) / (\text{먹})\text{지}(\text{아니하다})^3$

= $\langle \text{連結的} \rangle \text{ 지시사} = (\text{먹})\text{고}(\text{싶다}) / (\text{먹})\text{어}(\text{보았다}) / (\text{접접하})\text{게}(\text{도})(\text{못간다}) / (\text{먹})\text{지}(\text{못한다})^3$.

$\hat{E} = \langle \langle \text{非主觀助動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text{말}”(\text{다}) / “\text{버리}”(\text{다}) / “\text{하}/\text{되}”(\text{다}) / “\text{아니하}”(\text{다}).$

= $\langle \langle \text{主觀助動形} \rangle \text{ 피지시사} \rangle = “\text{싫}”(\text{다}) / “\text{보았}”(\text{다}) / “\text{못가}”(\text{ㄴ다}) / “\text{못하}”(\text{ㄴ다}).$

{ 2-1) $_1C: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2-1) $_1C: “_2Axé - (_2l) \rightarrow (_1\# \cdot _2f \rightarrow _2f \cdot _1\#) - (_1\#) \rightarrow _1\#”$

$Axé = \langle \text{連結 · 助動形} \rangle \text{ 지시사} = (\text{먹})\text{고}(\text{말다}) / (\text{먹})\text{이}(\text{버리다}) / (\text{먹})\text{계}(\text{하}/\text{되다}) / (\text{먹})\text{지}(\text{아니하다}).$

= $\langle \langle \text{連結 · 助動形} \rangle \text{ 지시사} \rangle = (\text{먹})\text{고}(\text{싫다}) / (\text{먹})\text{어}(\text{보았다}) / (\text{접접하})\text{게}(\text{도})(\text{못하}(\text{ㄴ다})) / (\text{먹})\text{지}(\text{못하}(\text{ㄴ다}))^4$.

$f = (\langle \text{非主觀} \cdot \text{本動形} \rangle \text{ 피지시사}) = \text{“먹”}$

$\# = (\langle \text{主觀} \cdot \text{本動形} \rangle \text{ 피지시사}) = \text{“먹”, “쩝쩝하”}.$

$$\begin{cases} 2-2) {}_2C: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2-2) {}_2C: {}_1Ax - ({}_1l) \rightarrow ({}_2\# \cdot {}_1f \rightarrow {}_1f \cdot {}_2\#) - ({}_2\#) \rightarrow {}_2\# \end{cases}$$

$Ax = (\text{主觀} \cdot \text{連結助動形}) \text{ 지시사} = (\text{먹}) \text{고} \ \text{싫} \langle \text{다} \rangle / (\text{먹}) \text{어} \ \text{보았} \langle \text{다} \rangle / (\text{쩝쩝하}) \text{게} (\text{도}) \text{못} \text{하} \langle \text{ㄴ다} \rangle / (\text{먹}) \text{지} \ \text{못} \text{하} \langle \text{ㄴ다} \rangle$

$\# = (\text{非主觀連結} \cdot \text{助動形}) \text{ 지시사} = (\text{먹}) \text{고} \ \text{말} \langle \text{다} \rangle / (\text{먹}) \text{어} \ \text{버리} \langle \text{다} \rangle / (\text{먹}) \text{게} \ \text{하되} / \langle \text{다} \rangle (\text{먹}) \text{지} \ \text{아니} \text{하} \langle \text{다} \rangle.$

$(f) = (\text{主觀} \cdot \text{本動形}) \text{ 피지시사} = (\text{먹}), (\text{쩝쩝하})$

$(\#) = (\text{非主觀本動形}) \text{ 피지시사} = (\text{먹})$

不連續(D)的 同形

(=外部의/不連續 2度(2D)의 同形)

同形의 順序:

(3) $F \rightarrow M$: (3)

[#
 (=不在的 連續)

$$\begin{cases} 1-1) {}_1C: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1-1) {}_1C: {}_1l/2 \text{ pers.} - ({}_1l) \rightarrow ({}_2\# \cdot {}_1Vs \rightarrow {}_1Vs \cdot {}_2\#) - ({}_2\#) \rightarrow {}_2\# \end{cases}$$

$1.2 \text{ pers.} = \text{지시사} = (\text{종결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자리 가} \text{게} ! / (\text{가} \text{ㅂ}) \text{니까?} \dots^4)$

$\# = \text{지시사} = (\text{연결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밥좀 먹} \text{게} (\text{조용해}) \text{라} ! / (\text{내가 아까보}) \text{니까} (\text{그 사람 가더}) \text{라}.)^4$

$(Vs) = (\text{어휘성} \cdot \text{종결적}) \text{ 피지시사} = (\text{가}), (\text{가} \text{ㅂ}) \dots$

$(\#) = (\text{어휘성} \cdot \text{연결적}) \text{ 피지시사} = (\text{먹}), (\text{보}) \dots$

$$\begin{cases} 1-2) {}_2C: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1-2) {}_2C: {}_23e \text{ pers.} - ({}_2l) \rightarrow ({}_1\# \cdot {}_2Vd \rightarrow {}_2Vd \cdot {}_1\#) - ({}_1\#) \rightarrow {}_1\# \end{cases}$$

${}_23^e \text{ pers.} = \text{지시사} = (\text{연결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밥좀 먹} \text{게} (\text{조용해}) \text{라} ! / (\text{내가 아까보}) \text{니까} (\text{그 사람 가더}) \text{라} \dots$

$\# = (\text{지시사}) = (\text{종결 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자리 가} \text{게} ! / (\text{가} \text{ㅂ}) \text{니까?} \dots$

$(Vd) = (\text{어휘성} \cdot \text{연결적}) \text{ 피지시사} = (\text{먹}), (\text{보}) \dots$

$(\#) = (\text{어휘성} \cdot \text{종결적}) \text{ 피지시사} = (\text{가}), (\text{가} \text{ㅂ}) \dots$

$$\begin{cases} 2) D: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2) D: {}_1\text{pers.act.} - ({}_1l) \rightarrow ({}_2\# \cdot {}_1Vact. \rightarrow {}_1Vact. \cdot {}_2\#) - ({}_2\#) \rightarrow {}_2\# \end{cases}$$

${}_1\text{pers. act.} = (\text{종결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조용해}) \text{라} ! / (\text{가더}) \text{라} \dots \text{등}, \text{“종결어미”형} \text{ 지시사}.$

$\# = (\text{연결어미형}) \text{ 지시사} = (-\text{먹}) \text{게} - / (-\text{보}) \text{니까}, \dots \text{등}, \text{“-아/-게/-지/-고”형} \text{ “연결어미”형} \text{ 지시사}$

(Vact.)=(어휘성·종결적)피지시사=(조용해), (가더), ...
 (#)=(어휘성·연결적)피지시사=(먹), (보), ...

(III) $F \rightarrow M$ 단계 $_1$ 連續($_1C$)的 同形(syimpse)(= $_1$ 内部的 同形)

同形의 順序

(1) $F \rightarrow M$:

(1)

$$\left\{ \begin{array}{l} 1-1) \quad _1C: "1U - (_1\phi) \rightarrow (2S \rightarrow _1S) - (_2\phi) \rightarrow _2U" \\ 1-1) \quad _1C: "1Q - (_1\phi) \rightarrow (2R_q \rightarrow _1R_q) - (_2\phi) \rightarrow _2R" \end{array} \right.$$

 Q =(근칭)지시사="이"⁶⁾ R =(중칭)지시사="그"

$$\left. \begin{array}{l} (_1Rq) = (\text{원칭})\text{피지시사} \\ (_2Rq) = (\text{원칭})\text{피지시사} \end{array} \right\} = "저"$$

$$\left\{ \begin{array}{l} 1-2) \quad _2C: "2U - (_2\phi) \rightarrow (1S \rightarrow _2S) - (_1\phi) \rightarrow _1U" \\ 1-2) \quad _2C: "2R - (_2\phi) \rightarrow (1R_q \rightarrow _2R_q) - (_1\phi) \rightarrow _1Q" \end{array} \right.$$

 R =(여격형)지시사="에게"(께) Q =(소유격형)지시사="의"⁷⁾ $(_2Rq) = "너"$ $(_1Rq) = "나"$

$$\left\{ \begin{array}{l} 2-1) \quad D: "1U - (_1l) \rightarrow (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_2l) \rightarrow _2U" \\ 2-1) \quad D: "1\hat{e} - (_1l) \rightarrow (2\hat{E} \cdot _1\hat{E} \rightarrow _1\hat{E} \cdot _2\hat{E}) - (_2l) \rightarrow _2\hat{e}" \end{array} \right.$$

 \hat{e} =(1인칭형)지시사="나" \hat{e} =(2인칭형)지시사="너"

$$\left. \begin{array}{l} (_1\hat{E}) = (\text{부정형})\text{피지시사} \\ (_2\hat{E}) = (\text{부정형})\text{피지시사} \end{array} \right\} = \text{누구}/\text{아무개}$$

$$\left\{ \begin{array}{l} 2-2-1) \quad _1C: "1U - (_1l) \rightarrow (2S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S) - (_2l) \rightarrow _2U" \\ 2-2-1) \quad _1C: "1tu - (_1l) \rightarrow (2je \cdot _1je \rightarrow _1je \cdot _2je) - (_2l) \rightarrow _2je" \end{array} \right.$$

 tu =(목적격형)지시사="을/를" je =(주격형)지시사="이/가"⁸⁾ $(_1je) = (\text{피지시사}) = "너"$ $(_2je) = (\text{피지시사}) = "나"$

$$\left\{ \begin{array}{l} 2-2-2) \quad _2C: "2U - (_2l) \rightarrow (1S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S) - (_1l) \rightarrow _1U" \\ 2-2-2) \quad _2C: "2je - (_2l) \rightarrow (1je \cdot _2je \rightarrow _2je \cdot _1je) - (_1l) \rightarrow _1tu" \end{array} \right.$$

 je =(주격/영격형)지시사="(<명사>밥)+φ tu =(목적격/영격형)지시사="(<명사>밥)+φ

$(_2je) = (\text{어휘성}) \text{피지시사} = \text{“어느”, “새”, “몇”, 등등.}$
 $(_1je) = (\text{어휘성}) \text{피지시사}$

$_2$ 連續($_2C$)的 同形

($=_2$ 內部的/外部的/不連續 1度($_1D$)的 同形)

同形의 順序

(2) $F \leftarrow M:$

(2)

[#
 (=不在的 連續)

$$\begin{cases} 1) D: "2U - (2l) \rightarrow (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1\#) - (1\#) \rightarrow 1\#" \\ 1) D: "2Vd - (2l) \rightarrow (1\# \cdot _2E \rightarrow _2E \cdot 1\#) - (1\#) \rightarrow 1\#" \end{cases}$$

$Vd = (\text{연결적} \cdot \text{불완전명사형}) \text{지시사} = (\text{어느}) \text{것} / (\text{무}) \text{엇} / (\text{누}) \text{구}, \text{등.}$

= (종결적 • 불완전관형형)지시사 = (어)느⁹ / (무)슨 / (어)면 / (이 • 그 • 저)런, 등.

(\hat{E}) = 연결적 • 1/2인칭 대명사 • 주/목격격형 피지시사 : (나/너 ; -에(께)서 ; -이(가)/-을(를) ; (잡수)시-(주격형 존대접사) ; (멱)이(다)(사역형 접사) ; (가더/가느)ㄴ(야) ? / (먹느)ㄴ¹⁰(야 ? / 다)(의문 • 대답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 ; (나)는¹¹ / (멱)은 / (나)를 / (멱)을(명사/대명사형 특수조사), 등등 ; (가ㄴ)다 / (가)더(ㄹ아)(직접/간접법적 종결 / 연결어미) ; (우리 / 사람)들(대명사 / 명사형 복수접사).

(#) = 종결적 • 3인칭 대명사 • 여격 • 특수조사형 피지시사 : 그 ; -에게(께) ; -이(가)/-을(를) / -도 / -는 / -만 ; (드리) + φ / (가)ㅂ - (목적격형 존대접사) ; (먹)히(다)(丐동형 접사) ; (가더)ㄹ(아) / (먹어)ㄹ(아)¹² (대답 • 명령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 ; (고있/멱)는 / (멱)은 / (하)ㄴ / (멱)을 / (하)ㄹ(관형형 특수조사), 등등 ; (가)더(ㄴ이아 ?) / (가)더ㄹ(아)(동사형 복수 접사)¹³ ; (빨리)들 / (가)들(자거라)(부사형 복수 접사).

$$\begin{cases} 2-1) _1C: "2U - (2l) \rightarrow (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1\#) - (1\#) \rightarrow 1\#" \\ 2-1) _1C: "2Axé - (2l) \rightarrow (1\# \cdot _2f \rightarrow _2f \cdot 1\#) - (1\#) \rightarrow 1\#" \end{cases}$$

$Axé = (\text{관형형}) \text{지시사} = -\underline{\text{ㄴ}}$

= (명사형)지시사 = “-것”

(f) = (관형형)피지시사 = “먹”(는), 등등.

(#) = (명사형)피지시사 = “먹”(는 것)

$$\begin{cases} 2-2) _2C: "1U - (1l) \rightarrow (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2\#) - (2\#) \rightarrow 2\#" \\ 2-2) _2C: "1Ax - (1l) \rightarrow (2\# \cdot _1f \rightarrow _1f \cdot 2\#) - (2\#) \rightarrow 2\#" \end{cases}$$

$Ax = (\text{명사형}) \text{지시사} = “-것”¹⁴$

= (관형형)지시사 = “-ㄴ”

(f) = (명사성/주관성/동 • 형용사형)피지시사 = “먹”(는 것), 등등.

(#) = (관형형/기술성/동 • 형용사형)피지시사

不連續(D)의 同形

(=外部의/不連續 2度(2D)의 同形)

同形의 順序

(3) $F \rightarrow M:$

(3)

[# (不在의 連續)

$$\left\{ \begin{array}{l} 1-1) {}_1C: "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1-1) {}_1C: " {}_11/2 \text{ pers.} - ({}_1l) \rightarrow ({}_2\# \cdot {}_1V_S \rightarrow {}_1V_S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array} \right.$$

1/2 pers. = (자동형/1·2인칭형 · 주관동사형)지시사 = “나/너”

(그 사람 좋/싫)(다/으냐)

= (타동형/3인칭형 · 기술동사형)지시사 = “그 사람”

(키 크/작) (다)

(Vs) = (위 자동 · 주관형)피지시사 = “그 사람 좋/싫”

= (위 타동 · 기술형)피지시사 = “키 크/작”

$$\left\{ \begin{array}{l} 2-1) {}_2C: " {}_2U - ({}_2l) \rightarrow ({}_1\# \cdot {}_2S \rightarrow {}_2S \cdot {}_1\#) - ({}_1\#) \rightarrow {}_1\# " \\ 2-1) {}_2C: " {}_23e \text{ pers.} - ({}_2l) \rightarrow ({}_1\# \cdot {}_2V_d \rightarrow {}_2V_d \cdot {}_1\#) - ({}_1\#) \rightarrow {}_1\# " \end{array} \right.$$

3^e pers. = (타동형/3인칭형 · 기술동사형)지시사 = “그 사람”(키(크/작)(다))

= (자동형/1·2인칭형 · 주관동사형)지시사 = “그 사람”(좋/싫)(다)

(Vd) = (위 자동 · 1/2인칭형)피지시사 = “키 크/작”

(#= (위 타동 · 3인칭형)피지시사 = “그 사람 좋/싫”

$$\left\{ \begin{array}{l} 2-2) D: " {}_1U - ({}_1l) \rightarrow ({}_2\# \cdot {}_1S \rightarrow {}_1S \cdot {}_2\#) - ({}_2\#) \rightarrow {}_2\# " \\ 2-2) D: " {}_1\text{pers. act.} - ({}_1l) \rightarrow ({}_2\# \cdot {}_1\text{Vact.} \rightarrow {}_1\text{Vact.} \cdot {}_2\#) - ({}_2\#) \rightarrow {}_2\# " \end{array} \right.$$

pers. act. = (1·2인칭형 · 주관동사형)지시사 = “나/너 그 사람”¹⁵⁾ (좋/싫) (더라/더냐)

= (3인칭형 · 기술동사형)지시사 = “그 사람 키” 크/작(더라)

(Vact.) = (위 1·2인칭형 · 주관동사형)피지시사 = “좋/싫더큰(들)”

(#= (위 3인칭형 · 기술동사형)피지시사 = “크/작더큰(들)”)

佛語의 “명사화(연결화/종결화)”의 同形一 :

佛語의 명사화(연결화/종결화)에 대한 Guillaume의 心理/精神力學論에 바탕을 둔 “구체적 假 言語/言語表現”(*앞 p. 125 참조)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그의 제자 Gérard Moignet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Moignet의 명사화(연결화/종결화)에 대한 연구(*Études de psycho-systématique française*, Édition Klincksieck, Pais, 1974) 가운데서 접속사(conjonction)와 부사(adverbe)에 관한 연구를 뽑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검토 내지 정리하고, 이어서 현대 韓語의 그에 대응되는 예들을 대비시킨다. 즉 :

佛語에서의 정리一 :

1) 부사와 접속사에서 각각 다루어진 사실들을, Guillaume의 병치적 단계 즉 “구체적(假

言語/言語表現적) 同形적 조작”안에서 어떠한 위치(position)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 : 즉 그 사실들을 : (1) 순서(1)로서의 $M(\text{의미})=F(\text{형태})$ 단계, (2) 순서(2)로서의 $F(\text{형태})=M(\text{의미})$ 단계, 그리고 (3) 순서(3)으로서의 $M(\text{의미})=F(\text{형태})$ 로 정리한다. 이어서

韓語에서의 정리— :

위에서 그 위치가 정리된 佛語에 대응하는 韓語의 예들을, 앞에서 이미 韓語에 관하여 정립된 바 있는 韩語의 “잠재적(분석적/연속적) 동형적 조작” 전체를 참고로 하여, “구체적(비분석적/불연속적) 同形적 조작” “전체” 안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佛語의 경우에서 정리된 바에 대응하는 韩語의 예들을 : 1) 순서(1)로서의 $M(\text{의미})=F(\text{형태})$ 단계 (*주의 : “=” : “混同/착각” 표시. 따라서 $F=M$ 으로 表記 가능함)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되는 韩語의 예. 2) 순서(2)로서의 $F(\text{형태})=M(\text{의미})$ 단계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하는 韩語의 예. 그리고 3) 순서(3)으로서의 $M(\text{의미})=F(\text{형태})$ 단계에 해당하는 佛語의 예에 대응되는 韩語의 예,로 정리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구체적(假言語/言語表現적) 同形적 조작”안에서의 큰 위치가 정해진 佛語와 韩語의 명사화(연결화/종결화)의 예들을, 이미 앞에서 韩語에 대하여 정립된 韩語의 ‘잠재적(분석적/연속적) 同形적 조작’ ‘전체’를 참고로 하여, “구체적(비분석적/불연속적) 同形적 조작” “전체” 안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다(*앞 p.132의 “一般形態論과 意味·統辭論의 관계”項 참조).

이것은 곧 이와 같이 ‘구체적’ 단계 ‘전체’에서 ‘정확한 위치’가 정해진 佛語의 예들이, ‘잠재적’ 단계 ‘전체’에서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

佛語의 부사와 형용사의 부사화의 예와 그 정리— :

위 표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Moignet는 1) 형용사 ; 2) 형용사의 부사화 ; 3) 부사로 분류하여 $M(\text{의미})$ 과 $F(\text{형태})$ 의 同形을 설명한다. 즉 :

(1) $M(\text{형용사})$ 와 $F(\text{명사})$ 의 同形 : Pierre(F) écoute attentif(M)〈P.는 주의 깊게 듣는다〉: 이것은 곧 $F(\text{Pierre}\langle\text{écoute}\rangle)=M(\text{attentif})$ 라고 요약될 수 있다. 즉 연속1적 同形이다 (*이때 F는 연속(1)적/기본(1)(cardinal 1)적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종속절)으로, M도 역시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주절)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

(2) $M(\text{부사화된 형용사})$ 와 $F(\text{명사와 동사의 同形})$ Pierre écoute(F) attentivement(M) 〈P.는 주의 깊게 듣는다〉 :

이것은 곧 $F(\text{Pierre écoute})=M(\text{attentivement})$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연속(2)적 F와 M의 同形이다 (*이때 F는 연속(2)적/기본(2)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주절)으로, M도 역시 기본(2)적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주절)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

(3) M(부사화된 형용사)와 F(동사)의 同形:

Pierre attend vainement<P.는 헛되히 기다린다>:

이것은 곧 $F(Pierre \text{ attend}) =_1 M(vainement)$ 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즉 F 와 M 의 불연속적 同形이다(*이때 F 는 불연속적/서열적(ordinal) 3인칭의 연결어미적 구문(증속절)으로, M 도 역시 불연속적/서열적 3인칭의 종결어미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종합설명: 위(1)의 “ $F=M$ ”은 결국 그것의 “불연속”으로서의 “(3)”의 F (종결적 동사: …attend/종결어미: …ϕ)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M (연결적 형용사: …vain…/연결어미: …ment….)과의 “연속(1)적” 同形이고: “ $_1 F$ (종결적지시사: …attend) = $_1 M$ (종결어미적
 $\xrightarrow{1} \xrightarrow{2}$
 피지시사…ϕ)” \equiv “ $_2 F$ (연결적지시사: …vain…)= $_2 M$ (연결어미적 피지시사: …ment….)”, (2)
 $\xleftarrow{1} \xrightarrow{2}$
 의 “ $F=M$ ”는 결국 그것의 “불연속”으로서의 “(2)”의 F (연결적 형용사: …attentive…/연
 결어미…ment….)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M (종결적 동사: …écoute/종결어미: …ϕ)와의
 연속(2)적(위 <1>과는 “異(逆) 方向적” 同形이고: “ $_1 F$ (연결적지시사: …attentive…)= $_1 M$
 (연결어미적 피지시사: …ment….)” \equiv “ $_2 F$ (종결적지시사: …écoute)= $_2 M$ (종결어미적 피지
 시사: …ϕ)”, (3)의 “ $F=M$ ”은 결국 그것의 “불연속”으로서의 (1)의 F (종결적 동사: …
 $\xrightarrow{1} \xrightarrow{2}$
 écoute/종결어미: …ϕ)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M (연결적 형용사: …attentif…/연결어미
 …ϕ….)과의 “불연속적”(위 “1” 및 “2”와는)異(逆)方向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 $_1 F$ (종
 결적지시사: …écoute)= $_1 M$ (종결어미형피지시사: …ϕ)” \equiv “ $_2 F$ (연결적지시사: …attentif…)
 $\xleftarrow{1} \xrightarrow{2}$
= $_2 M$ (연결어미형 피지시사: …ϕ….)”.

위 (1), (2), (3)의 “설명”에서 각각 모두 “ F (동사/형용사)의 테두리 안에서…”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大體系”안에서의 “小體系”(*^{앞 pp. 127-128 참조})⁶⁾ 각각에서의 “ F ”를 뜻하고, “大體系”⁶⁾에 있어서는 연속(1)과 연속(2)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연속(1)적 同形

6) * “잠재 단계의 小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_1 F \xrightarrow{1} M$: “ $_1 F$ ”과 “ $_1 M$ ”을 “하나로” 보았을 때의 ${}_1$ 잠재적/ ${}_1$ 연속적/内部적/展望적($\swarrow \searrow$ 또는 \rightarrow) “ $_1 F$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그와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즉 (“ $_1 F$ ”과 “ $_1 M$ ”을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_1 F$ 즉 (“하나”로서의 “ $_1 F$ ”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2$ 잠재적/ ${}_2$ 연속적/外部적/回顧적(\uparrow 또는 \leftrightarrow) $_1 M$ 과의 ${}_1$ 잠재적/ ${}_1$ 小體系적/ ${}_1$ 연속적/内部적/展望적($\swarrow \searrow$ 또는 \rightarrow) 同形;

(2) $_2 F \xrightarrow{2} M$: 위 “(1)”의 “同形”($_1 F \xrightarrow{1} M$)을 “하나로 본”, 위 “(1)”과 그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_1$ 잠재적/…/展望적($\swarrow \searrow$ 또는 \rightarrow) $_2 F$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1)” (즉 “ $_1 M$ ”와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위 “(1)”과는) 異(逆)方向의 ${}_2$ 잠재적/…/回顧적(\uparrow 또는 \rightarrow) $_2 M$ 와의 ${}_2$ 잠재적/ ${}_2$ 小體系적/ ${}_2$ 연속적/ ${}_2$ 外部적/ ${}_2$ 展望적($\swarrow \searrow$ 또는 \rightarrow) 同形,

(3) $_1 F \xrightarrow{1} M$: 위 “(2)”의 “同形”($_2 F \xrightarrow{2} M$)을 “하나로 본”, 즉 위 “(2)”와 그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_1$ 잠재적/…/展望적($\swarrow \searrow$ 또는 \rightarrow) $_1 F$ 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2)” (즉 (“ $_2 M$ ”와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위 “(2)”와는) 異(逆)方向의 ${}_2$ 잠재적/…/回顧적(\uparrow 또는 \leftrightarrow) $_1 M$ 과의 ${}_3$ 잠재적/ ${}_3$ 小體系적/不連續적/並置적/ ${}_2$ 外部적 回顧적(\uparrow 또는 \rightarrow) 同形.

즉 : “ ${}_1F = {}_1M$ ” \rightleftharpoons “ ${}_2F = {}_2M$ ” 와 그 “外形은同一”하나, 그 “實質 내용”은 “同一하지 않은”,

$$\begin{array}{c} 1 \xrightarrow{\quad} 2 \\ (1) \qquad \qquad \qquad 1 \xleftarrow{\quad} 2 \\ \qquad \qquad \qquad (2) \end{array}$$

즉 전망적($\swarrow\searrow$)/연속적 연속(1)과 “異(逆)方向적/회고적” “불연속적”(병치적) ($\overset{\uparrow}{\wedge}$) 同形

* “잠재 단계의 大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위 “小體系” “(1)” (${}_1F \leftrightarrow {}_1M$)과 “(2)” (${}_2F \leftrightarrow {}_2M$)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_1$ 잠재적/ ${}_1$ 大體系적/ ${}_1$ 連續적/內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1) 즉 : “ ${}_1F \leftrightarrow {}_1M \rightleftharpoons {}_2F \leftrightarrow {}_2M$ ”의 태두리안에서의 그것과

$$\begin{array}{c} 1 \xrightarrow{\quad} 2 \qquad \qquad 1 \xrightarrow{\quad} 2 \\ (1) \qquad \qquad (2) \end{array}$$

$\overbrace{\qquad\qquad\qquad\qquad\qquad\qquad}$ (1)

그와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즉 위 “(1)”과 “(2)”를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1) 즉 (“하나”로서의 “(1)”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2$ 잠재적/ ${}_2$ 大體系적/ ${}_2$ 連續적/外部적/回顧적, ($\overset{\uparrow}{\wedge}$ 또는 \leftarrow) (2) : “ ${}_1F \leftrightarrow {}_1M \rightleftharpoons {}_2F \leftrightarrow {}_2M$ ”와의 잠재적/大體系적/連續적/內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begin{array}{c} 1 \xleftarrow{\quad} 2 \qquad \qquad 1 \xrightarrow{\quad} 2 \\ (1) \qquad \qquad (2) \end{array}$$

$\overbrace{\qquad\qquad\qquad\qquad\qquad\qquad}$ (2)

同形.

* “구체적 단계의 小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 ${}_1M \equiv {}_1F$ ” · “잠재 단계”的 “(1)” 즉 : “ ${}_1F \rightleftharpoons {}_1M$ ”을 “하나로” 보았을 때의 ‘잠재적/연속적/内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_1F$ 과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즉 (“(1)”의 “ ${}_1F$ ”과 “ ${}_1M$ ”을)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_1F$ 즉 (“하나”로서의 “ ${}_1F$ ”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異(逆)方向적”) “구체적 단계”的 “구체적/不連續적/外部적/回顧적”($\swarrow\searrow$ 또는 \leftarrow) (1). “ ${}_1M \equiv {}_1F$ ”에서, (“ ${}_1F$ ”과 “ ${}_1M$ ”을 “하나로” 보았을 때의 “ ${}_1F$ ”) 즉 (“하나”로서의 “ ${}_1F$ ”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1$ 구체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_1M$ 의 태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 ${}_1F$ ”과 “ ${}_1M$ ”을)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_1F$ 즉 (“하나”로서의 “ ${}_1M$ ”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2$ 구체적//回顧적($\overset{\uparrow}{\wedge}$ 또는 \leftarrow) ${}_1F$ 과의 “ ${}_1$ 구체적/ ${}_1$ 小體系적/ ${}_1$ 연속적/内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同形,

(2) “ ${}_2M \equiv {}_2F$ ” . 위 “(1)”의 “同形”(${}_1F \equiv {}_1M$)을 “하나로 본”, 위 “(1)”과 그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_2F$ 즉 (“하나”로서의 “ ${}_2F$ ”와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1$ 구체적//展望적, ($\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_2M$ 의 태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1)” (즉 “ ${}_1F$ ”과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위 “(1)”과는) 異(逆)方向의 ${}_2$ 구체적//回顧적, ($\overset{\uparrow}{\wedge}$ 또는 \leftarrow) ${}_2F$ 와의 ${}_2$ 구체적/ ${}_2$ 小體系적/ ${}_2$ 연속적/外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leftarrow) 同形,

(3) “ ${}_2M \equiv {}_2F$ ” : 위 “(2)”의 “同形”(${}_2M \equiv {}_2F$)을 “하나로 본”, 즉 위 “(2)”와 그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_1F$ 즉 (“하나”로서의 “ ${}_1F$ ”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1$ 구체적//展望적, ($\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_1M$ 의 태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2)” 즉 (“ ${}_2F$ ”와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위 “(2)”와는) 異(逆)方向의 ${}_2$ 구체적//回顧적, ($\overset{\uparrow}{\wedge}$ 또는 \leftarrow) ${}_1F$ 과의 ${}_3$ 구체적/ ${}_3$ 小體系적/不連續적/外部적/回顧적, ($\overset{\uparrow}{\wedge}$ 또는 \rightarrow) 同形.

* “구체적 단계의 大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잠재 단계의 大體系”的 “(1)”과 “(2)”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잠재적/연속적/内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1) (*위 “잠재적 단계의 大體系 (1)” 참조)과, 그와 “(순서 1로서의) 外形이同一한”, 즉 (“(1)”의 “(1)”과 “(1)”의 “(2)”를)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1)의 (1)” 즉 (“하나”로서의 “(1)의 (1)”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異(逆)方向적”) “구체적/不連續적/外部적/回顧적”($\overset{\uparrow}{\wedge}$ 또는 \rightarrow) “구체적 단계의 大體系” (1) : “ ${}_1M = {}_1F \rightleftharpoons {}_2M = {}_2F$ ”에서, (“(1)의 (1)”과 “(1)”

$$\begin{array}{c} 1 \xrightarrow{\quad} 2 \qquad \qquad 1 \xrightarrow{\quad} 2 \\ (1) \qquad \qquad (2) \end{array}$$

$\overbrace{\qquad\qquad\qquad\qquad\qquad\qquad}$ (1)

의 (2)를 “하나로” 보았을 때의 “(1)의 (1)” 즉 (“하나”로서의 “(1)의 (1)”과 그 “實質內容이同一한”) ${}_1$ 구체적/ ${}_1$ 大體系적/ ${}_1$ 連續적/内部적/展望적($\swarrow\searrow$ 또는 \rightarrow) (1) : (“위와 같음”)의 태두

으로서의 “ ${}_1F = {}_1M$ ” \rightleftharpoons “ ${}_2F = {}_2M$ ”를 말한다.

$$\begin{array}{c} 1 \xrightarrow{\hspace{1cm}} 2 \\ (1) \qquad \qquad \qquad (2) \end{array}$$

韓語의 “연결어미구문”(종속적/피조동)과 “종결어미 구문”(주절/조동)의 佛語에 대응되는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 :

1) 잠재적 단계 : “연결/종결”어미구문의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예로서는 “아/-게/-지/-고” 형 또는 “-니까”형 등의 “연결어미” 형 지시사와 그에 붙는 피지시사 즉 형용사/동사(조용하-, 먹-, 보-, 등), 그리고 “-니까, -더라, -라” 등의 “종결어미” 형 지시사와 그에 붙는 피지시사 즉 형용사/동사(먹-/조용하-)의 예를 들 수 있다. 이것을 위 佛語의 예 (1), (2), (3)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 p.126 도표 : “일반형태론(2)” 참조)

(1) F(연결/종결어미)와 M(동사/형용사)의 “연속적(형태적)” 同形 : “(밥좀 먹)게(조용해)라 ! : “(내가 아까 보)니까(그사람 가려)라”… / ”(처리 가)게 !” : “(가臼)니까 ?”

*註 : 이것은 곧

“ ${}_1F$ (연결어미형지시사 : …개…〈라〉/…니까…〈라〉) \leftrightarrow {}_1M(피지시사 : …먹…/…보…)" \rightleftarrows " ${}_2F$

$$\begin{array}{c} 1 \xleftarrow{\hspace{1cm}} 2 \\ (2) \end{array}$$

 (종결어미형지시사 : …개 / …니까) \leftrightarrow ${}_2M$ (피지시사 : …가 / …가臼)"라고 요약될 수 있다. 즉

$$\begin{array}{c} 1 \xleftarrow{\hspace{1cm}} 2 \\ (2) \end{array}$$

 연속(1)적 同形이다(*이 때 左측의 “ ” 표시부분 즉 (1)은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종속절)으로, 右측의 “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조동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2) 위 (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方向의 同形 :

*註 : “ ${}_1F$ (연결어미형지시사 : -개…라/-니까…라) \leftrightarrow {}₁M(피지시사 : …먹…/…보…)" \rightleftarrows

$$\begin{array}{c} 1 \xrightarrow{\hspace{1cm}} 2 \\ (1) \end{array}$$

 “ ${}_2F$ (종결어미형지시사 : …개 / …니까) \leftrightarrow {}₂M(피지시사 : …가 / …가臼)"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F와 M의 연속(2)적 同形이다(*이 때 左측의 “ ” 표시 부분 즉 (1)은 연속(2)적 기본(2)적 3인칭의 “조동적” 구문(종속절)으로, 右측의 “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연속(2)적 기본(2)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3) F(종결/연결어미)와 M(동사/형용사)의 “불연속적(병치적/의미적)” 同形 : 위 1)과 표기 형태는 같음 :

*註 : 이것은 곧 위 “(1)”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즉 F와 M의 “불연속적(병치적)” 同形이다(*이 때 左측의 “ ” 표시 부분 즉 (1)은 불연속적/서열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종속

리안에서의 그것과, (“(1)의 (1)”과 “(1)의 (2)”를)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1)의 (1) 즉 (“하나”로서의 “(1)”과 그 實質內容이 同一한”) ‘₂구체적 / ₂大體系적 / ₂連續적 / 外部적 / 回顧적’ (\wedge 또는 \leftrightarrow) (2) : “ ${}_1M = {}_1F$ ” \rightleftharpoons “ ${}_2M = {}_2F$ ”와의 ‘구체적 / 大體系적 / 連續적 / 内部적 / 展望적’ (\swarrow 또는 \rightarrow)

$$\begin{array}{c} 1 \xleftarrow{\hspace{1cm}} 2 \\ (1) \qquad \qquad \qquad (2) \end{array}$$

同形.

절)으로, 右측의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불연속적/서열적 3인칭의 “조동적”구문(주절)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종합설명 : 위 (1)의 “(1)↔(2)”는 左 “(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右)“(2)”와의 연속(1)적 同形이고, (2)의 “(1)↔(2)”는 “하나”로 본 위 (1)과 그 “外形이同一한”(左)“(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위 (1) 즉 위 (右)“(2)”와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異/逆方向적)”(右)“(2)”와의 연속(2)적 同形이고, (3)의 “(1)↔(2)”는 “하나”로 본 위 (2)와 그 “外形이同一한”(左)“(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따로 따로” 본 위 (2) 즉 위 (右)“(2)”와는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異逆方向적)”(右)“(2)”와의 불연속적/병치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1), (2), (3)의 “설명”에서 각각 모두 “(左)(1)의 테두리 안에서...”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大體系” 안에서의 “小體系”(*앞 pp. 127-128 참조) 각각에서의 (左)“(1)”을 뜻하고, “大體系”에 있어서는 연속(1)과 연속(2)를 “따로 따로”보았을 때의 “병치적” 불연속적 同形 : $\begin{array}{c} {}_1F \leftrightarrow {}_1M \\ 1 \xrightarrow{\quad\quad\quad} 2 \\ (1) \end{array} \rightleftharpoons \begin{array}{c} {}_2F \leftrightarrow {}_2M \\ 1 \xleftarrow{\quad\quad\quad} 2 \\ (2) \end{array}$ 와 그 “外形은同一”하나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즉 회고적/불연속적(\wedge) 同形과 異(逆)方向의 “연속(1)적” 同形 : $\begin{array}{c} {}_1F \leftrightarrow {}_1M \\ 1 \xrightarrow{\quad\quad\quad} 2 \\ (1) \end{array} \rightleftharpoons \begin{array}{c} {}_2F \leftrightarrow {}_2M \\ 1 \xleftarrow{\quad\quad\quad} 2 \\ (2) \end{array}$

를 말한다(*앞 pp. 132-133의 그림 및 “一般形態論과 意味·統辭論의 관계”項 참조).

2) 구체적 단계 : 이 단계는 앞에서 본 佛語의 “구체적 단계”에 대응시켜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이 단계는 곧 위 1) “잠재적 단계”的 (1), (2), (3) 각각을 모두 “불연속화” 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연속”的 “불연속화”에 대해서는 앞 p. 132 참조). :

(1) M(동사/형용사)과 F(종결/연결 어미)의 “연속적(형태적)” 同形 : (저리 가)게 ! : (가)니까 ? /(밥좀먹)게 (조용해)라 ! : (내가 아까보)니까 (그사람 가더)라 :

*註 : 이것은 곧

$\begin{array}{c} {}_1M(\dots가/\dots가급) = {}_1F(\dots계/\dots니까) \\ 1 \xrightarrow{\quad\quad\quad} 2 \\ (1) \end{array} \rightleftharpoons \begin{array}{c} {}_2F(\dots먹\dots/\dots보\dots) = {}_2M(\dots계\dots/\dots니까\dots라) \\ 1 \xleftarrow{\quad\quad\quad} 2 \\ (2) \end{array}$,

즉 “ ${}_1F(\text{종결적 지시사} : *\text{위 (1)의 2위치와 같음}) = {}_1M(\text{종결어미형 피지시사} : *\text{위 (1)의 1위치와 같음})$ ” \rightleftharpoons “ ${}_2F(\text{연결적 지시사} : *\text{위 (2)의 1위치와 같음}) = {}_2M(\text{연결어미형 피지시사} : *\text{위 (2)의 2위치와 같음})$ ”라고 요약될 수 있다. 즉, 연속(1)적 同形이다(*이 때 F는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조동적구문”(주절)으로, M도 역시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2) 위(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direction의 同形 :

*註 : “ ${}_1F(\text{연결적 지시사} : *\text{위와 같음}) = {}_1M(\text{연결어미형 피지시사} : *\text{위와 같음})$ ” \rightleftharpoons “ ${}_2F(\text{종$

결적 지시사 : *위와 같음) $\underset{(2)}{\leftrightarrow} M$ (종결어미형 피지시사 : *위와 같음)"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F와 M의 연속(2)적 同形이다(*이때 F는 연속(2)적/기본(2)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종속)으로, M도 역시 연속(2)적/기본(2)적 3인칭의 "조동적"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3) *앞 1) 잠재적 단계의 (1)을 "불연속화"시키거나 위 (2)를 "불연속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음(*위 p. 132 참조).

*위의 종합설명 : 앞 "잠재적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위 (1) 및 (2)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佛語의 "연결어미 구문"(종속적/피조동)과 "종결어미 구문"(주절/조동)의, 韓語에 대응되는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 — :

1) 잠재적 단계 : 이 단계는 앞에서 정리한 佛語의 "구체적 假言語/言語表現단계"의 (1), (2), (3) 각각과 그에 대응되는 韓語의 "구체적 단계"의 (1), (2)(3) 각각을 모두 "연속화" 시킴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앞 p. 132 참조). 즉

(1) "Pierre écoute attentif"; M(동사/형용사)과 F(종결/연결 어미)의 同形 : (attentif) + Φ /(Pierre écoute) + Φ :

*註 : 이것은 곧 " ${}_1F$ (연결어미적 지시사 : ... ϕ ...) $\underset{(1)}{\leftrightarrow} {}_1M$ (연결적 피지시사 : ...attentif...)" \Leftrightarrow " ${}_2F$ (종결어미적 지시사 : ... ϕ) $\underset{(2)}{\leftrightarrow} {}_2M$ (종결적 피지시사 : ...écoute)"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연속(1)적 同形이다(*이때 左측의 " " 표시 부분 즉 (1)은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피조동적"(종속절)로, 右측의 "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연속(1)적/기본(1)적 3인칭의 "조동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2) "Pierre écoute attentivement": 위 (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方向의 同形 :

*註 : " ${}_1F$ (종결어미적 지시사 : ... Φ) $\underset{(1)}{\leftrightarrow} {}_1M$ (종결적 피지시사 : ...écoute)" \Leftrightarrow " ${}_2F$ (연결어미적 지시사 : ...ment...) $\underset{(2)}{\leftrightarrow} {}_2M$ (연결적 피지시사 : ...attentive...)"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F와 M의 연속(2)적 同形이다(*이때 左측의 " " 표시 부분 즉 (1)은 연속(2)적/기본(2)적 3인칭의 "조동적" 구문(주절)으로, 右측의 "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연속(2)적/기본(2)적/기본(2)적 3인칭의 "피조동적"구문(종속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3) "Pierre attend vainement":

*註 : 이것은 곧 위(1)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 " ${}_1F$ (연결어미적 지시사 : ...ment...) $\underset{(1)}{\leftrightarrow} {}_1M$ (연결적 피지시사 : ...vaine...)" \Leftrightarrow " ${}_2F$ (종결어미적 지시사 : ... ϕ) $\underset{(2)}{\leftrightarrow} {}_2M$ (종결적 피지시사 : ...vainement...)"

attend)" 즉 F와 M의 "불연속적(병치적)" 同形이다(*이때 左측의 " " 표시 부분 즉 (1)은 불연속적/서열적 3인칭의 "피조동적" 구문(종속절)으로, 右측의 " " 표시 부분 즉 (2)도 역시 불연속적/서열적 3인칭의 "조동적" 구문(주절)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종합설명 : 위 (1)의 " $F \leftrightarrow M$ "은 左측 "(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右측 "(2)" 와의 異(逆)方向적 연속(1)적 同形이고, (2)의 " $F \leftrightarrow M$ "은 左측 "(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右측 "(2)"와의 "연속(2)적" 異(逆)direction적 同形이고, (3)의 $F \leftrightarrow M$ 은 左측 "(1)"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것과 右측 "(2)"와의 "불연속적" 異(逆)direction적 同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1), (2), (3)의 "설명"에서 각각 모두 "左측(1)의 테두리 안에서..."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大體系"안에서의 "小體系"(*앞 pp. 127-128 참조) 각각에서의 左측(1)을 뜻하고, "大體系"에 있어서는 연속(1)과 연속(2)를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병치적"(불연속적) 同形 즉 " $\begin{smallmatrix} {}_1F \leftrightarrow {}_1M \\ 1 \longrightarrow 2 \\ (1) \end{smallmatrix} \leftrightarrow \begin{smallmatrix} {}_2F \leftrightarrow {}_2M \\ 1 \longleftarrow 2 \\ (2) \end{smallmatrix}$ "와 그 "外形은同一"하나 그 "實質內容이同一하지 않은", 즉

회고적/불연속적($\overset{\uparrow}{\wedge}$) 同形과 異(逆)direction의 "연속(1)적" 同形 즉 : " $\begin{smallmatrix} {}_1F \leftrightarrow {}_1M \\ 1 \longrightarrow 2 \\ (1) \end{smallmatrix} \leftrightarrow \begin{smallmatrix} {}_2F \leftrightarrow {}_2M \\ 1 \longleftarrow 2 \\ (2) \end{smallmatrix}$ " 를 말한다(*앞 p. 131 참조).

2) 구체적 단계 : 위 "佛語의 부사와 형용사의 부사화의 예와 그 정리" 항과 같음.

韓語의 "명사화"/"형용사화"(관형화)의 同形에서의 "피조동"(연결/주관성/종속절/내부적 명사화 어미)과 "조동"(종결/객관성/주절/외부적 명사화 어미)의 "잠재적 단계"와 "구체적 단계"의 분석- :

1) 잠재적 단계 : 피조동/조동 어미 구분의 첫째 유형의 예로서는 F(不完全 명사형<連結적> 명사화 요소 : "...(어느)것..." ; "...(이) • 그 • 저)것..." ; "...(무)엇...", 등/不完全 冠形(詞)形<終結적> 관형화요소 : "...(아)느" ; "...(무)순" ; "...(어)면" ; "...(이) • 그 • 저)런", 등)와 M(1•2인칭 대명사 및 주어 • 목적어(專用의) 格조사 : "...나 • 너..." ; "...에(께)서 • 이 <가> • 을<를>..." / 3인칭 대명사 및 여격•(주어 • 목적어 格 이외에 특수한 어휘성 의미를 갖는) 특수조사 : "...그" ; "...에게(께) • 이<가> • 을<를> • 도 • 는 • 만",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유형의 예로서는 F("것" 형 "명사형"<₁連結적>지시사/-"ㄴ" 형 "冠形形"<₂終結적>지시사)와 M("명사형"<₂連結적>피지시사 : 형용사/동사(먹<는 것>/조용하<ㄴ 것> 등)/"冠形形" <₂終結적>피지시사 : 형용사/동사(먹<는>/조용하<ㄴ>)의 예를 들 수 있다. 이것을 앞서의 예가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위 p. 140 : "韓語의 잠재적(분석적/연속적)조직" 및 *위 p. 126 도표 : "일반형태론(2)" 참조) :

(1) F(위 ₁連結적 지시사/위 ₂終結적 지시사)와 M(위 ₁終結적 피지시사/위 ₂終結的 피지시사)의 '연속적(형태적) 同形' :

*註: 이것은 곧 “ ${}_1F(*위 {}_1연결적 지시사: …것…)\leftrightarrow_1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나・너$
 $\dots; …o〈가〉・을〈를〉…, 등) \Leftarrow_2 F(*위 {}_1종결적 지시사: …〈어느・무슨・어떤・이런〉, 등)$
 $\leftrightarrow_2 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그; …에게〈깨〉; …〈도・는・만〉, 등)”라고 요약될 수 있다.
⁽¹⁾
⁽²⁾ 즉 ‘ ${}_1연속적$ ’ 同形이다(*주의 : 左측(1)/右측(2)에 대한 설명은 앞 p.148의 佛語의 “잠재적 단계”와 모두 같음).$

(2) 위(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方向의 同形’:

*註: “ ${}_1F(*위 {}_1종결적 지시사: …ㄴ)\leftrightarrow_1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먹) \Leftarrow_2 F(*위 {}_1연결적$
 $지시사: …것…)\leftrightarrow_2 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먹…)$ ”라고 요약될 수 있다.
⁽¹⁾
⁽²⁾

(3) F(*위 {}_1연결적 지시사: …것…/*위 {}_1종결적 지시사; …ㄴ)와 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먹… /*위 {}_2종결적 피지시사: …먹…의 同形:

*註: 이것은 곧 위(1)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 ${}_1F({}_1연결적 지시사: …것…)\leftrightarrow_1M({}_2연결적$
 $피지시사: …먹…)\Leftarrow_2 F({}_1종결적 지시사: …ㄴ)\leftrightarrow_2 M({}_2종결적 피지시사: …먹)$ ”. 즉
⁽¹⁾
⁽²⁾ F와 M의 ‘불연속적(병치적)’ 同形이다.

*주의 종합설명: *앞 p.148의 佛語의 “잠재적 단계”와 그 끌자는 같음.

2) 구체적 단계: 이 단계는 바로 위 1) “잠재적 단계”的 “(1), (2), (3)” 각각을 모두 “不連續化” 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앞 p.132 참조).

(1) 밖로 위 “잠재적 단계(小體系)의 (3)”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시킨, F(관형적〈 ${}_1종결적$ 〉지시사: …먹/명사화적〈 ${}_1연결적$ 〉지시사: …먹…)와 M(관형적〈 ${}_2종결적$ 〉피지시사: …ㄴ/명사화적〈 ${}_2연결적$ 〉피지시사: …것…).의 ‘불연속/의미(1)/(₁최대)’을 내용으로 하는 ‘ ${}_1연속적$ 同形’:

*註: 이것은 곧 “ ${}_1F(*위 {}_1종결적 지시사: …먹)=_1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ㄴ) \equiv {}_2F$
 $(*위 {}_1연결적 지시사: …먹…)=_2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것…)$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¹⁾
⁽²⁾ (*주의 : 左측(1)/右측(2)에 대한 설명은 앞 pp.145-146의 韓語의 “잠재적 단계”와 모두 같음).

(2) 위(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方向의 同形:

*註: 이 同形은, 바로 위 “잠재적 단계(小體系)의 (2)”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위 〈 ${}_1연결적$ 〉지시사: …먹…/*위 〈 ${}_1종결적$ 〉지시사: …먹)와 M(*위 〈 ${}_2연결적$ 〉피지시사: …것…/*위 〈 ${}_2종결적$ 〉피지시사: …ㄴ)의 ‘불연속/의미(2)/(₂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 ${}_2연속적$ 同形’이다. 즉

$\begin{array}{c} {}_1F({}_1\text{연결적 지시사} : \cdots \text{며} \cdots) = {}_1M({}_2\text{연결적 피지시사} : \cdots \text{것} \cdots) \rightleftharpoons {}_2F({}_1\text{종결적 지시사} : \cdots \\ 1 \xrightarrow{(1)} 2 \\ \text{며}) = {}_2M({}_2\text{종결적 피지시사} : \cdots \text{ㄴ} \cdots) \end{array}$

“ $\text{며}) = {}_2M({}_2\text{종결적 피지시사} : \cdots \text{ㄴ} \cdots)$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3) *앞 1) “잠재적 단계”의 (1) 또는 위 (1)을 “不連續化”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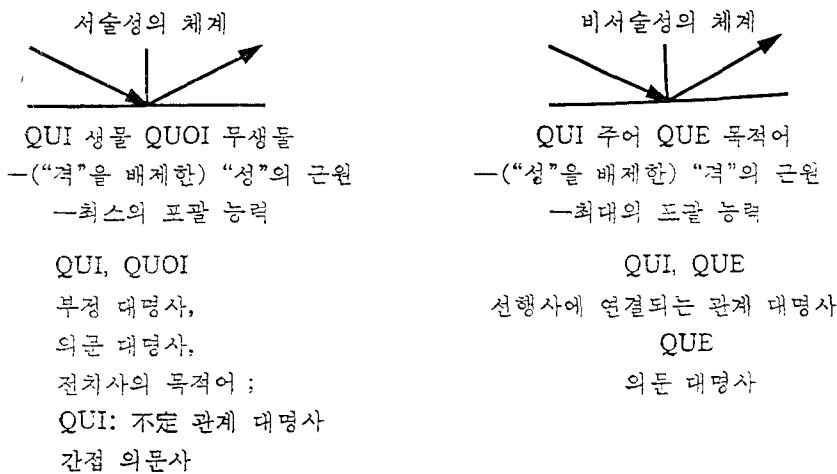
즉 F(3인칭 대명사 및 여격 · 특수조사형 <₁종결적>지시사 : …그 ; …에게<께> ; …도<는 · 만>, 등/1·2인칭 대명사 및 주어 · 목적어 격형 <₁연결적>지시사 : …나<너>… ; …이<가> · 을<를>… ; 등)와 M(관형형 <₂종결적>피지시사 : …ㄴ/명사화 어미형 <₂연결적>피지시사 : …것….)의 ‘연속/의미(ϕ)/(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 “ $\begin{array}{c} {}_1F(*\text{위 } {}_1\text{종결} \\ \text{적 지시사}) = {}_1M(*\text{위 } {}_2\text{종결적 피지시사}) \rightleftharpoons {}_2F(*\text{위 } {}_1\text{연결적 지시사}) = {}_2M(*\text{위 } {}_2\text{연결적 피지} \\ \text{시사}) \end{array}$

“ $\text{며}) = {}_2M({}_2\text{종결적 피지시사} : \cdots \text{ㄴ} \cdots)$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위의 종합설명 : 앞((p. 147/p. 148)의 韓/佛語의 “구체적 단계의 종합설명”과 설명방식이 같음.

佛語의 명사화/형용사화(관형화)에서의 “연결”(주관성/종속절/내부적 명사화 어미)과 “종결”(객관성/주절/외부적 명사화 어미)의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的 분석- :

1) 구체적 단계 : Moignet는 佛語의 “qui/que/quoi”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이것을 위에서 정리한 韓語의 “구체적 단계”에 대응 시켜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QUI/QUE/QOUI의 굵은 부분은 記號的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표시함).

(1) *뒤(p. 155) 韩/佛語의 “잠재적 단계(小體系)의 (3)”의 同形을 不連續化시킨, F(₁종결적<동사형>지시사 ; …mange/₁연결적<동사형>지시사 ; …mange….)와 M(₂종결적<관계대명사형>피지시사 ; …QUE/₂연결적<관계대명사형>피지시사 ; …QUI….)의 ‘불연속/의미(1)/₁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₁연속적 同形’ :

*註：이것은 곧 “ ${}_1F(*위 {}_1종결적 지시사)={}_1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 \rightleftharpoons “ ${}_2F(*위 {}_1연결적 지시사)={}_2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라고 $\overset{(1)}{\text{요약}}$ 될 수 있다(*주의 : 左측(1)/右측(2)에 대한 설명은 앞 p. 147/p. 148의 佛語/韓語의 “구체적 단계”와 모두 같음).

(2) 위 (1)의 F와 M의 同形과 異(逆)方向의 同形 :

*註：이 同形은(*뒤 p. 155) 韓/佛語의 “잠재적 단계(小體系)의 (3)”의 同形을 不連續化시킨, $F({}_1연결적<\text{동사형}> \text{지시사}; \dots\text{mange}\dots / {}_1종결적<\text{동사형}> \text{지시사} : \dots\text{mange})$ 와 $M({}_2연결적<\text{관계대명사형}> \text{피지시사} : \dots\text{QUI}\dots / {}_2종결적<\text{관계대명사형}> \text{피지시사} : \dots\text{QUE})$ 의 ‘불연속/의미(2)/(2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 ${}_2연속적$ 同形’이다. 즉 :

$“{}_1F(*위 {}_1연결적 지시사)={}_1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rightleftharpoons “{}_2F(*위 {}_1종결적 지시사)={}_2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과 같이 $\overset{(1)}{\text{요약}}$ 될 수 있다.

(2) *위 (1) 또는 *위 (1)/(2)에 적힌 韓/佛語의 “잠재적 단계(小體系)의 (1)”을 “不連續化”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즉 $F(\text{격적}<\text{관계 대명사형}> {}_1종결적 \text{지시사} : \dots\text{QUE}/\text{격적}<\text{관계대명사형}> {}_1연결적 \text{지시사} : \dots\text{QUI}\dots)$ 와 $M(\text{성적}<\text{의문대명사형}> {}_2종결적 \text{피지시사} : \dots\text{QUI}/\text{성적}<\text{의문대명사형}> {}_2연결적 \text{피지시사} : \dots\text{QUI}\dots)$ 의 ‘연속/의미(ϕ)/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 “ ${}_1F(*위 {}_1종결적 지시사)={}_1M(*위 {}_2종결적 피지시사)$ ” \rightleftharpoons “ ${}_2F(*위 {}_1연결적 지시사)={}_2M(*위 {}_2연결적 피지시사)$ ”, 와 같이 $\overset{(1)}{\text{요약}}$ 된다.

*위의 종합설명 : 위(*앞 p. 147/p. 148)의 韓/佛語의 “구체적 단계의 종합설명”과 설명방식이 같음.

2) 잠재적 단계 :

위(*앞 pp. 145-146/pp. 147-148)의 韩/佛語의 “잠재적 단계(小體系)”와 설명방식이 같음; 또 뒤 結論(pp. 154-155) 참조.

*위의 종합설명 : 위(*앞 p. 148/p. 149)의 韩/佛語의 “잠재적 단계의 종합설명”과 설명방식을 같이 함.

결 론

“形態(F)와 意味(M)의 同形적, 즉 非恣意적 分析理論”에 토대를 둔 韓・佛 두 언어의 “名詞化(連結化/終結化)”라는 同形,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佛語의 形容詞적 副詞(構文)/形容詞의 副詞化(構文) 및 (QUI/QUE/QUOI)(관계)代名詞(構文)과 그에 대응하는 韓語의 連結語尾(構文)/終結語尾(構文) 및 名詞化(構文)/冠形化(構文)에 관하여 앞에서 파악・설명한 바를 다시 간추려서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I) 잠재적 단계

*주의 “...(○)...”: 연결체(요소) / “...(○)”: 종결체(요소).

<p>韓語:連結語尾(韓文)/終結語尾(韓文)</p> <p>*예문: “(밥풀)게 (조용해)탁!”, “(내가 아까 보)니까 (그사람 가더)라”/“(처리가)제!”; “(가보)니까?”</p>	<p>佛語:形容語의 副詞(佛文)/形容詞의 副詞化(佛文)</p> <p>*예문: “Pierre écoute attentif”/“Pierre écoute attentivement”/“Pierre attend vainement”</p>
<p>(1) *同形: ...먹게...”; “...보니까...”; “...가네!”; “...가보니까?” 에서, F(연결어미: ...제...; ...니까...)/중결어미: ...게..., ...니까...)와 M(연결체 동사: ...먹...; ...보...)/중결체 동사: ...가...)의 ‘연속체 同形’;</p> <p>“₁F(연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leftrightarrow₁M(연결체 퍼지지사: ...attentif ...먹.../...보...)”\leftrightarrow₂F(중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leftrightarrow₂M(중결체 퍼지지사: ...écou- te...)”;</p> <p>(2) *同形: “...가제!”; “...가보니까?!”/“...먹제...”; “...보니까 ...”에서, F(중결어미: ...제...; ...니까...; ...나까...)와 M(중결체 동사: ...écoute/연결체 청 응- 와 M(중결체 동사: ...가/연결체 동사: ...먹...; ...보...)/의 ‘연속 체 同形’;</p> <p>“₁F(연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leftrightarrow₁M(중결체 퍼지지사: écou- te...)”\leftrightarrow₂F(연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leftrightarrow₂M(연결체 퍼지지사: ...atten- tive...)”;</p> <p>(연결체 퍼지지사: ...먹.../...보...”);</p> <p>(3) *同形: “...먹제...”; “...보니까...”; “...조용해라!”; “...가더 라”에서, F(연결어미: ...제...; ...니까...)/중결어미: ...라...)와 M(연 결체 동사: ...먹...; ...보...)/중결체 청 응사: ...조용해; ... 가)의 ‘불연속체(병체적/의미적) 同形’;</p> <p>“₁F(연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아·제·지·고...)”\leftrightarrow ₁M(연결체 퍼지지사: ...먹.../...보...)”\leftrightarrow₂F(중결어미 청 지지사: ...제.../...니까...)”\leftrightarrow₂M(중결체 퍼지지사: vaine...)”\leftrightarrow₂F(중결어미 청 지지사: ...제.../...보...)”\leftrightarrow₂M(중결체 퍼지지사: 1 2 (1) (2)</p>	
<p>小體系</p>	<p>人 文 論 譲 (第29輯)</p>

$$\text{라} \rightarrow_2 M(\text{종결적} \text{ 퍼지시사} : \dots \text{조용히} / \dots \text{가} < \text{너} >) \\ (2)$$

“연속적으로”/“하나로”(\rightarrow) 보아진 위 韓/佛語 각각의 “小體系”(1) 및 (2)와 “불연속으로”/“따로 따로”(\leftarrow) 보아진 위 韓/佛語 각각의 “小體系”(1) 및 (2) 즉 (3)과의 “연속적”(\rightarrow) 同形.

(II) 구체적 단계

(1)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3)”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종결적 형용사 및 동사 : ...조용하, ...가/연 결체 동사 : ...美貌... ; ...보...)와 M(종결어미 : ...라 ; ...다/연결어 미 : ...개... ; ...니까...)의 ‘불연속/의미(1)/(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연속적 同形’;

“F(종결적 차시사 : ...조용하 ; ...가<너>) =_1 M(종결어미형 퍼지시 사 : ...라)” \rightleftharpoons “₂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2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라)”; “₁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1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라)”; “₂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2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라)”; “₁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1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美貌... ; ...니까...)”;

(2)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2)”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연결적 동사 : ...하... ; ...보.../종결적 동사 : ...가 ; ...가<ㅂ>)와 M(연결어미 : ...개... ; ...나까.../종결어미 : ...개 ; ...니까...)의 ‘불연속/의미(2)/(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연속적 同形’;

“₁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1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美貌... ; ...나까...)” \rightleftharpoons “₂F(연결적 차시사 : ...가 ; ...가<ㅂ>) =_2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美貌... ; ...나까...)” \rightleftharpoons “₁F(연결적 차시사 : ...美貌... ; ...보...) =_1 M(연결어미형 퍼지시사 : ...美貌... ; ...나까...)”;

(3)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1)”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종결적 동사 : ...가 ; ...가<ㅂ>/연결적 동사 : ...美貌... ; ...보...)와 M(종결어미 : ...개... ; ...나까/연결어미 : ...개... ; ...니까...)의 ‘연속/의미(Philip)/(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1)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3)”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종결적 형용사 및 동사 : ...attend/연결적 형용사 : ...vain...)와 M(종결어미 : ...phi/연결어미 : ...ment...)의 ‘불연속/의미(1)/(최대)’을 내용으로 하는 ‘연속적 同形’;

“₁F(종결적 차시사 : ...attend) =_1 M(종결어미적 퍼지시사 : ...phi)” \rightleftharpoons “₂F(연결적 차시사 : ...vain...) =_2 M(연결어미적 퍼지시사 : ...ment)”; “₁F(연결적 차시사 : ...attend) =_1 M(연결어미적 퍼지시사 : ...phi)”; “₂F(연결적 차시사 : ...vain...) =_2 M(연결어미적 퍼지시사 : ...ment)”;

(2)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2)”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연결적 형용사 : ...attentive.../종결적 동사 : ...écouté.../연결어미 : ...ment.../종결어미 : ...phi)의 ‘불연속/의미(2)/(최대)’를 내용으로 하는 ‘연속적 同形’;

“₁F(연결적 차시사 : ...attentive...) =_1 M(연결어미적 퍼지시사 : ...écouté)” \rightleftharpoons “₂F(연결적 차시사 : ...écouté) =_2 M(종결어미적 퍼지시사 : ...ment)”;

(3) *同形: 위 “잠재적 단계 (小體系)의 (1)”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종결적 동사 : ...가 ; ...가<ㅂ>/연결적 형용사 : ...美貌... ; ...보...)와 M(종결어미 : ...phi/연결어미 : ...phi...)의 ‘연속/의미(Philip)/(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₁F(종결적 지시사 : …가, …가<(ㅂ)>) =₁M(종결어미 형 피지시사
…제, …나까)”; “₂F(연결적 지시사 : …卑…, …보…)=₂M(연결어
미 형 피지시사 : …개…; …나까…).”

$$\frac{1}{\downarrow} \xrightarrow[1 \leftarrow \frac{(1)}{(2)}]{} \xrightarrow[2 \leftarrow \frac{(2)}{\phi...}]{} \text{“연속적으로”/“하나로”}(\rightarrow) \text{보아진, 위 韓/佛語 각각의 “小體系”(1) 및 (2)와 “불연속적으로”/“따로 따로”}(\leftarrow) \text{보아진 위 韩/佛語 각각의 “小體系”(1) 및 (2) 즉 (3)과의 “연속적”}(\rightarrow) \text{同形.}$$

大體系

(1) 程 式 級 단 계

韓語 : 名詞化(韓文) / 形容詞(冠形)化(韓文)

*이 名詞化(連結적/영시적) 어미 . …것 …冠形(終結적/동사적) 어
미 : …- / (連結적) 1·2인칭 대명사 및 주격 · 특수격 형 조사(지시
사) : …나…, …나…; …에…(께)사…; …이(가)…; 을(를)…/…그…;
적) 3인칭 대명사, 예격 및 특수조사(지시사) : …그; …에(께);
…이(가); …을(를); …는(는); …는(는); …그; …는(는); …그;

(1) *同形 : “…(어느)것”; “…(이 · 그 · 저)것”; “…(무)엇
…”; “…(누)구”; “…(느)”; “…(무)는”; “…(어)면”; “…(이 ·
그 · 저)면”; “…나 · 나”; “…에(께)서”; “…이(가) · 을(를)...”/“…그”;
“…에(께) · 이(가) · 을(를) · 도 · 는”; “…”에서, F(영시화어미 : …
것 …/관형어미 : …-L)와 M(1·2인칭 대명사 및 주어 · 특
수조사 : …그, …에(께); …도(는 · 만) 등)의 ‘연속적’ 同形.
“₁F(연결적 · 영사형 지시사 : …것 …) =₁M(연결적 · 1·2인칭 대명
사 · 주 / 특적 척적 피지시사 : …나 · 뇌…, …이(가) · 을(를)…, 등)”
 \leftrightarrow “₂F(종결적 · 관형형 지시사 : …<어 느 · 무순 · 어 떡 · 이 런>) =₂M
(종결적 · 3인칭 대명사 · 예격 · 특수조사형 피지시사 : …그, …에(께)
…); …<도 · 는 · 만>, 등”;

(2) *同形 : “…에는”/“…먹는것”; “…에(제)”; F(관형형 어미 : …-L / 명

佛語 : (QUI/QUE/QUOI) 接續詞(構文)

*예 : 連結 · 생물 · 級述 · 性質 지시사 : …QUI…/終結 · 무생물 · 賦
出 · 성적 지시사 : …QUOI/連結 · 비서술 · 주어 · 格적 지시사 : …
QUI…/終結 · 非敍述 · 特性 어 · 格적 지시사 : …QUE
*주의 : 굵은 활자는 記號論적 ‘同形’의 순서’를 나타냅.

(1) *同形 : 위 “예”의 “…QUI...”, “…QUIO!”/“…QUI...”; “…
QUI!”에 서, F(연결 · 성적<의문 대명사형>)지시사 : …QUI…/종결 ·
성적<의문 대명사형>)지시사 : …QUIO!)와 M(연결 · 性質<관계 대명
사>)지시사 : …QUI…/종결 · 性質<관계 대명사형>)지시사 : …QUE)
의 ‘연속적 同形’.

$\frac{1}{\downarrow} \xrightarrow[1 \leftarrow \frac{(1)}{(2)}]{} \xrightarrow[2 \leftarrow \frac{(2)}{\dots\text{QUE}\dots}]{} \text{〈관계 대명사〉형 피지시사 : …QUI...} \leftrightarrow_1 M(\text{연결 · 性
질}) \text{지시사 : …QUI...} \leftrightarrow_2 F(\text{종결 · 성 · <의문 대명
사>}형 피지시사 : …QUIO...) \leftrightarrow_2 M(\text{종결 · 性 · <관계 대명
사>}형 피지시사 : …그, …에(제))$

(2) *同形 : 위의 “종결 · 性 · <관계 대명사>적 지시사 : …QUE(je

系

사회어미 : …것…와 M(관형적 동사 : …먹/명사화적 동사 : …먹)
의 ‘₂연속적 同形’ :

$$\begin{array}{c} "1F(\langle\text{관형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것}\dots)\leftrightarrow_1M(\langle\text{관형형}\rangle\text{피지시사}:\dots\text{먹}\dots)"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langle\text{명사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것}\dots)\leftrightarrow_2M(\langle\text{명사형}\rangle\text{피지시사}:\dots\text{먹}\dots)" ; \\ \xleftarrow[1]{2} \end{array}$$

(3) *同形 : “…먹는것…/…먹는”에시, F(영사화어미 ‘…것…/관형형어미 : …ㄴ)와 M(영사화적 동사 : …먹…/관형적 동사 : …먹)의 ‘불연속적(並置적/의미적) 同形’ :

$$\begin{array}{c} "1F(\langle\text{명사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것}\dots)\left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leftrightarrow_2F(\langle\text{관형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ㄴ}\dots)\leftrightarrow_2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연속적으로”/“하나로”(-→)보아진 위 韓/佛語 각각의 “小體系 (1) 및 (2)”와 “불연속적으로”/“따로 따로”(-→)보아진 위 韩/佛語 각각의 “小體系 (1) 및 (2)” 즉 (3)과의 “연속적”(-→) 同形.

大體系

(1) *同形 : 위 “점체적 단계(小體系)의 (3)”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관형적 동사 : …먹/명사화적 동사 : …먹 …)와 M(관형형어미 : …ㄴ/영사화어미 : …것…)(의 미 (1)/(최대))을 내용으로 하는 ‘₁연속적 同形’ :

$$\begin{array}{c} "1F(\langle\text{관형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먹}\dots)=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langle\text{명사형}\rangle\text{자시사}:\dots\text{먹}\dots)=_2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QUE"\equiv_2"2F(\text{연결적 관형자시사}:\dots\text{것}\dots)" ; \\ \xleftarrow[1]{2} \end{array}$$

(II) 구체적 단계

(1) *同形 : 위 “점체적 단계(小體系)의 (3)”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 시킨, F(종결적 동사 : …mange/연결적 동사 : …mange…)/M(종결 관형어미)피지시사 : …QUI/연결 관형어미)피지시사 : …QUI…)(의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

$$\begin{array}{c} "mange"\leftrightarrow_2F(\text{연결적 관형자시사}:\dots\text{QUI}\dots)\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QUI"\leftrightarrow_2M(\text{"/}\text{"})\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QUI"\leftrightarrow_2F(\text{연결적 관형자시사}:\dots\text{QUI}\dots)\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QUI"\leftrightarrow_2F(\text{연결적 관형자시사}:\dots\text{QUI}\dots)\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begin{array}{c} "...QUI"\leftrightarrow_2M(\text{"/}\text{"})\rightarrow_1M(\text{"/}\text{"})\rightarrow_2" \\ \xleftarrow[1]{2} \end{array}$$

(2) *同形 : 위 “접체적 단계(小體系)의 (2)”의 ‘동형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시킨, F(영사화적 동사 : …터…/관형형 동사 : …터)와 M(명사화 어미 : …것…/관형형 어미 : …ㄴ)의 ‘불연속/의미’와 M(영사화 어미 : …터…/관형형 어미 : …ㄴ)의 ‘불연속/의미(2)/(2회 대)’를 내용으로 하는 ‘_{2연속적 同形’ :}

“_{1F(영사형지사 : …터…)=1M(“ ” “ 피지지사 : …것…)}”₁
_{2F(관형형지사 : …터…)=2M(“ ” “ 피지지사 : …ㄴ…)}”₂

“₂₁
₁₂”₍₂₎

(3) *同形 : 위 “접체적 단계(小體系)의 (1)”에서, 그것을 不連續化시킨, F(3인칭 대명사 및 예격·특수주조사 : …그…/…에게〈여는·만〉등)/1.2인칭 대명사 및 주어·목적어 격조사 : …나〈녀〉…, …이〈가〉…을〈를〉…, 등)와 M(관형형 어미 : ㄴ/명사화어미 : …것…)/의미(φ)/(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

“₁_{1F(종결적3인칭 대명사·예격·특수주조사형)지지사 : …그…에…게〈여〉; …도〈는·만…, 등…)=1M(종결적〈관형형〉피지지사 : …나…)}
₁₂₂”₍₁₎
₂₁₁
₁₂”₍₂₎

“₂_{2F(연결적1.2인칭 대명사·주어·목적어 격형)지지사 : …나〈녀〉…; 이〈가〉…을〈를〉…, 등…)=2M(연결적〈명사형〉피지지사 : …것…)}”₂

“연속적으로”/“하나로”(→)보아진 위 韓/佛語 각각의 “小體系 (1) 및 (2)”와 “불연속적으로”/“따로 따로”(←)보아진 위 韩/佛語 각각의 “小體系” (1) 및 (2)” 즉 (3)과의 “연속적”(→) 同形.

*주의 : 아래 “phi접체[理論]단계”의 그림은 ‘韓/佛語’를 같은 ‘連續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이는 그림임에 주의.

피지지사 : …QUI…”,

(2) *同形 : 위 “접체적 단계(小體系)의 (2)”의 ‘同形의 예’에서, 그것을 不連續化시킨, F(연결적 동사 : …mange…/중결적 동사 : …mange)와 M(연결적 關代名사 : …QUI…/중결적 “ ” : QUE)의 ‘불연속/의미(2)/(2회 대)’를 내용으로 하는 ‘_{2연속적 同形’ :}

“_{1F(연결적 지지사 : …터…)=1M(“ ” “ 피지지사 : …QUI…)}”₁
₂₁
₁₂”₍₁₎
₂₂”₍₂₎

(3) *同形 : 위 “접체적 단계(小體系)의 (1)”에서, 그것을 不連續化시킨, F(중결·격·〈關代名詞형〉지지사 : …QUI/연결·격·〈關代名詞〉격 지지사 : …QUI...)와 M(중결·성·〈의문대명사〉격 지지사 : …QUOI/연결·성·< ” ” >격지지사 : …QUI...)의 ‘연속/의미(φ)/(최소)’를 내용으로 하는 ‘불연속적/並置적 同形’ :

“₁_{1F(중결·격·〈關代名詞〉격 지지사 : …QUI)=1M(중결·성·}
₁₂₂”₍₁₎
₂₁₁₁
₁₂₂”₍₂₎

“₂_{2F(연결·격·〈關代名詞〉격 피지지사 : …QUI)}”₁
₁₂₂”₍₁₎
₂₁₁₂”₍₂₎

“연속적으로”/“하나로”(→)보아진 위 韩/佛語 각각의 “小體系 (1) 및 (2)”와 “불연속적으로”/“따로 따로”(←)보아진 위 韩/佛語 각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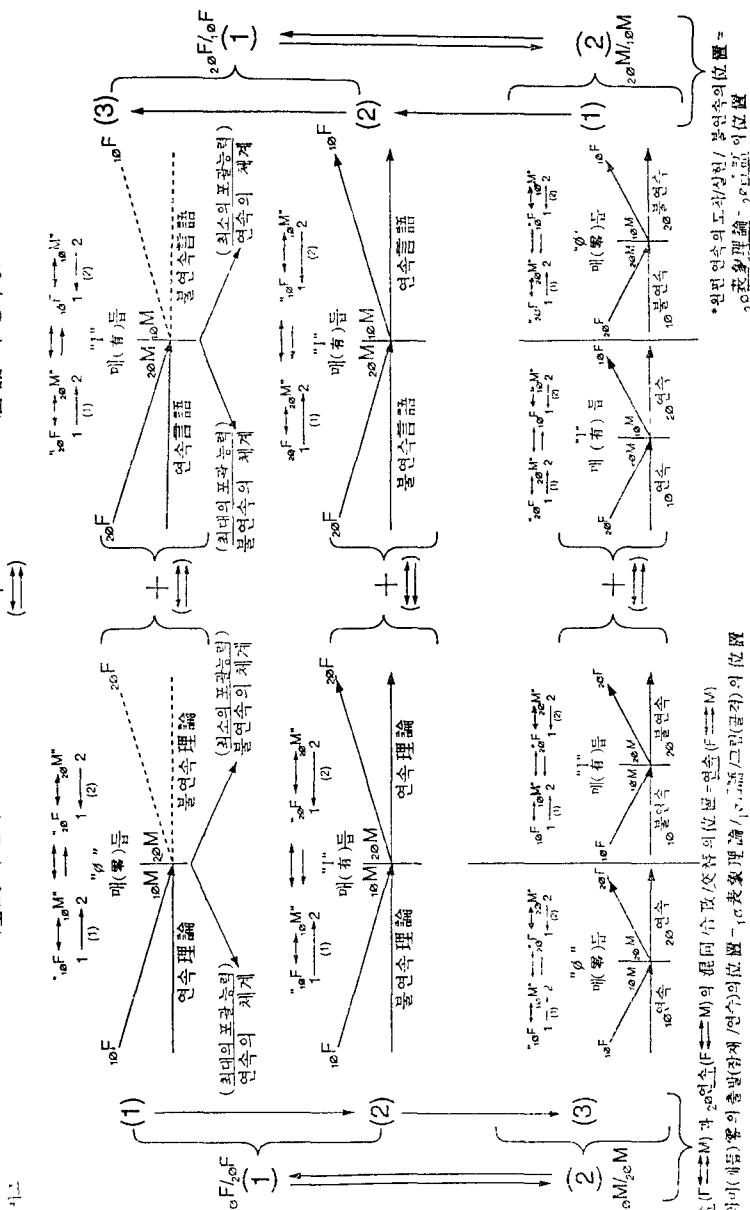
“小體系” (1) 및 (2)” 즉 (3)과의 “연속적”(→) 同形.

大體系

形態과 意味의 同形的(非恣意的) 分析理論과 그 適用

(φ) 質 理 論 단 理 論 +

(理論의 연속성)



*주의: 광·‘관체·단·나’/‘감체·단체’
여서와 같은 주의
‘大體系는 (3) ~ (1→2)~(1)~(2)~(3)’의 2가지
(3→2)의 순서로 소통系는 (1)~(2)~(3)의 2가지
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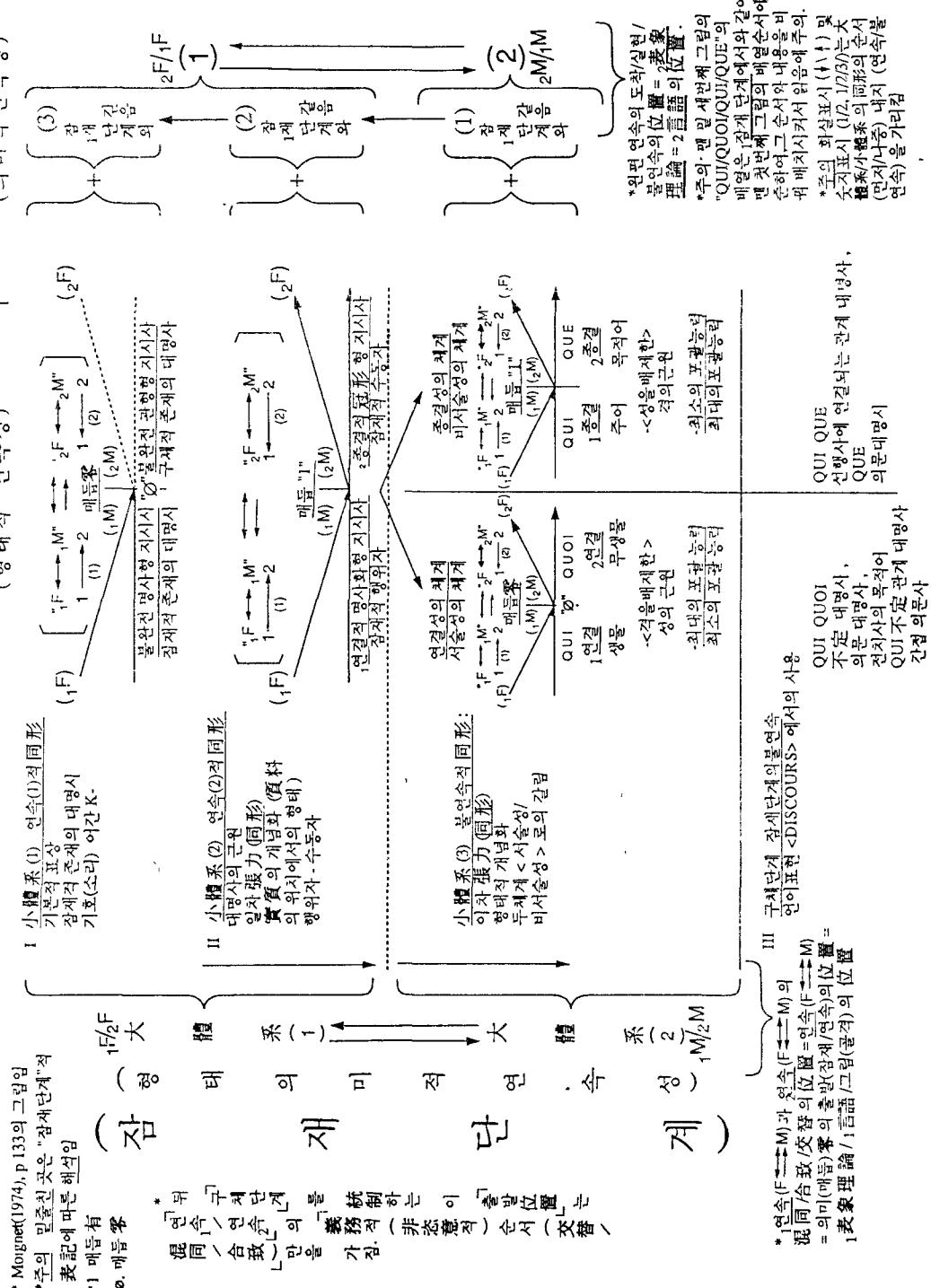
- 광·‘관체·단·나’와 같은 주의
‘大體系는 (3) ~ (1→2)~(1)~(2)~(3)’의 2가지
인 경우 (3→2)의 순서로 소통系는 (1)~(2)~(3)의 2가지
인 경우
- 광·‘관체·단·나’와 같은 주의
‘大體系는 (3) ~ (1→2)~(1)~(2)~(3)’의 2가지
인 경우 (3→2)의 순서로 소통系는 (1)~(2)~(3)의 2가지
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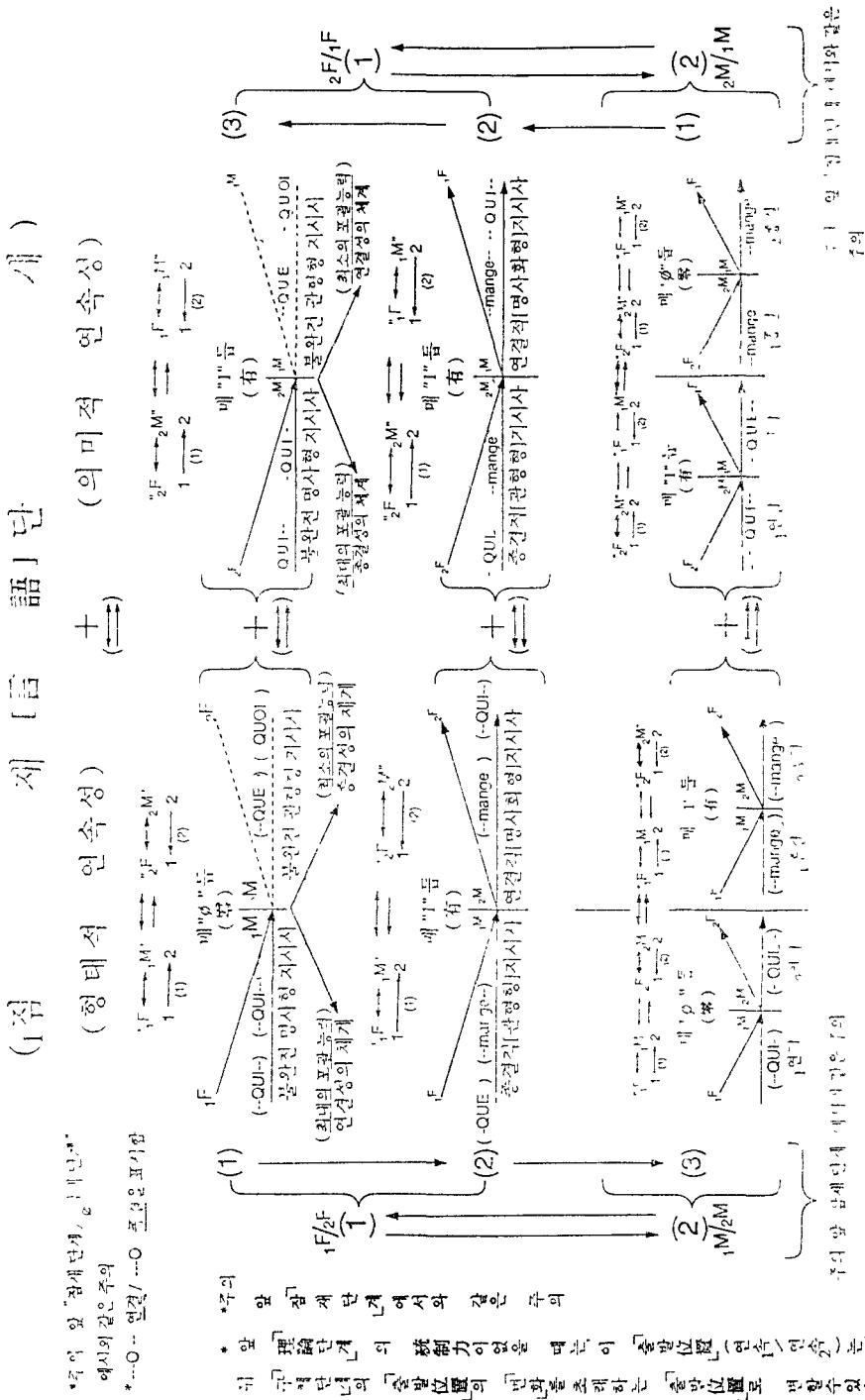
*한번 인수의 도착/상황/부언주의 위치

= 20^o도우리 문학 - 20^o도우리 문학

*인수 (F→M)가 20^o연속(F→M)의 雜同合致(연속)의 위치 (F→M)의 위치

= 20^o도우리 문학 - 20^o도우리 문학





* 앞 p. 134 이하(韓語의 잠재적 조작)의 註

- 1) “疑問-反問-대답”에 대해서는 앞 註(5) 및 Moignet(1966), *Esquisse d'une théorie psychomécanique de la phrase interrogative*, in *Langage* 3, pp. 49-66 참조. 그리고 말을 교환하는 각도에서의 根源文의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Antoine Culoli(1973),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in *Communication* 20, Paris Seuil, p. 86 註3 참조. 또 *La Question(Sous la direction de Catherine Kerbrat-Orecchioni)*(1991), P.U.L.(Lyon) 참조.
 ‘人稱의 同形的 組織’의 구성을 1) (₁먼저/₁연속 位置: ‘疑問-反問-대답’적) ‘屈折人稱’, 2) (₂먼저/₂연속 位置: 名詞化/冠形·形容詞化的) ‘動詞의 人稱’ 그리고 3) (나중/並置/不連續 位置의) ‘代名詞의 人稱’으로 보는 것은, 마치 ‘屈折(語尾)’(inflectional <suffix>)를 ‘派生(語尾)’(derivational <suffix>)에 先行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 즉 1) ₁屈折, 2) ₂屈折(₁派生), 3) 派生(₂派生)으로 보는 것과 같다(*비록 Guillaume의 ‘假(pseudo-)言語/假言語表現’의 단계에서 이지만, ‘屈折’의 ‘文法性/一般性/추상성/分析性’과 ‘派生’의 ‘어휘성/特殊性/구체성/非分析性’의 구분에 대해서는: *J. Hewson <1975>, *Derivation and Inflection in English*, in *Studies in English Grammar*, P.U.L., pp. 79-104 참조).
- 위 ‘一般形態論’ 단계의 1)/2)/3)을 ‘추상/一般(主觀)’에서 ‘구체/特殊(行爲)’로의 운동: 1) 主觀(의문-대답화)→2) 記述(名詞化)→3) 行爲(動詞化)라 할 때, 그 ‘統辭論’ 단계는 그와 異(逆) 方向의 ‘더 구체적 구체(行爲)’에서 ‘더 구체적 一般(의문-대답화)’으로의 운동: 1) 行爲(動詞化)→ 2) 記述(名詞化)→3) 客觀的·구체적 一般化(의문-대답화)라 할 수 있다. 즉 1) ‘代名詞의 主語人稱十動詞’ 단계를 2) ‘名詞化’시키고, 거기에다 3) ‘疑問-대답’形 語尾를 첨가시킴으로써 完全한 文章이 成立되는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비로소, ‘一般에서 特殊’로의 ‘一般形態論’(또는 超(hyper)統辭論) 단계와 ‘特殊에서 一般’으로의 ‘統辭論’ 단계가 明白히 구분되면서 表裏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 2) 呼稱(格)과 유사한 “감탄文”을 根源文으로 보는데 대해서는 Culoli(1974), *A propos des énoncés exclamatifs*, in *Langue Française*, MAI, Paris, Larousse, pp. 6-15 참조.
- 3) 連結的 指示辭로서의 前置詞의 意味에 바탕을 둔 ‘指示-被指示’ 관계에 대해서는: Moignet (1974), *Sur la 『transitivité indirecte』 en français*, in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II, I, Strasbourg, pp. 281-299 참조 (*-듯<하다>, -것<같다> 등 ‘助動詞形 不完全名詞’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4) 拙稿(1977/1978), 機能的 관점에서의 補助動詞研究(上/下), 韓어학(2/3), pp. 99-132/pp. 89-120 참조.
- 5) 英語의 連結構文/終結構文의 구별: “Why are'nt you a doctor?”(終結構文); “Why don't you (連結構文)/be a doctor?”(終結構文)”에 대해서는, Walter H. Hirtle(1965), *Auxiliaries and voice in English*, in *Les Langues Modernes*, LIX, p. 31 참조.
- 6) 指示辭('this/that')의 心理/精神力學論적 고찰에 대해서는 André Joly(1987), *Le système de la deixis: esquisse d'une théorie d'expression en anglais*, in *E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 P.U.L., pp. 123-173 참조.
- 7) 所有格 “의”的(副)主格 (이/가)으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劉昌惇, 李朝語辭典, 1964, p. 604 참조; 日語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S.E. Martin, *A reference grammar of Japanes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p. 254, note 48 참조.
- 8) (위 指示辭 “이/그”와 同形인) 韓語와 日語의 主格에 쓰이는 “이/가” (은/는)/ “[ga]” (wa)의 意味를 “il y a” 《있다》로 볼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서는: Culoli(1979), *Conditions d'utilisations des données issues de plusieurs langues naturelles*, in *Modèles linguistiques*, tome 1, fasc. 1,

P.U.L., p. 9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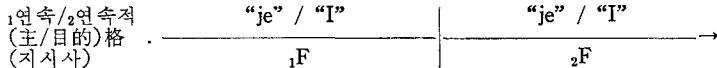
- 9) 拙稿(1968), ‘15세기 국어의 冠形形에 나타나는 交替音韻(ヰ/ヰ)의 機能에 관하여’, 語學研究4 (2), pp. 11-27 참조; 佛語(QUI/QUE/QUOI)를 ‘連結적/敘述적/生物/無生物/性적’ 指示辭와 ‘終結적/格적/非敘述적/主目的格的’ 被指示辭로 구분하는 데 대해서는, Moignet(1974), *Le système du paradigme QUI/QUE/QUOI*, in *Études de Psycho-systématique Française*, Paris, Klincksieck, pp. 163-183 참조.
- 10) 15세기 韓語의 2인칭 疑問의 “-ㄴ-” 어미에 대하여는: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 p. 294 등 참조.
- 11) ○ 이 두 (*名詞形/*動詞形) 助詞에 대하여는 變形文法에서 ‘關係節’의 “는”과 ‘非關係節’의 “는”의 (音聲的) 同形을, ‘思考運動的 同形’으로서가 아니라, ‘論理的’/‘限定-被限定的’ 관계로써 ‘連結’지으려는 試圖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記號的混同’(<con>fusion)의 理由를, ‘言語’와 分明히 分離(dissociation)되는 ‘論理’를 言語에 優先시킴으로써, 그 ‘論理’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 根源을 Chomsky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試圖’는 ‘論理로 부터의 脱皮’가 아니라 ‘論理안에서의 맵쁨’에 그치게 된다(*이에 관해서는 Kuno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를 中心으로 한 論議: 이홍배<1975>, ‘국어의 關係節化에 관하여’, 語學研究, 11-2, pp. 289-300; 高永根<1983>, ‘國語文法의 研究 <그 어제와 오늘>’, p. 147 등 참조).

○ ‘思考運動的 同形’의 관점에서의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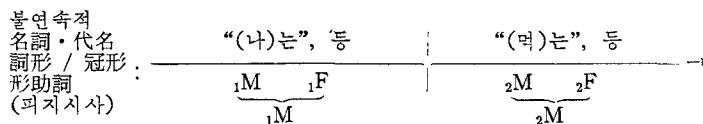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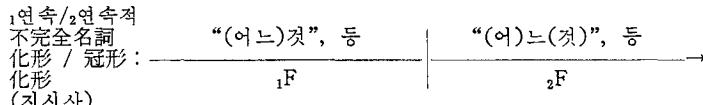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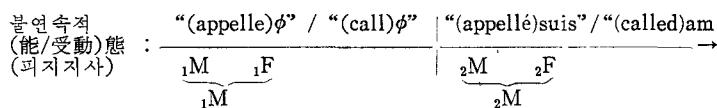
【주의 : ‘화살표시’의 ‘左/右’는 ‘ 먼저 位置’/‘나중 位置’를 가리킴; 본 논문의 앞의 모든 公式 (*결론 부분의 公式 참조)에서와 같이, 아래의 ‘同形’은 1) 1연속: “₁F → ₁M” → “₂F ← ₂M”; 2) 2연속: “₁F → ₁M” ← “₂F ← ₂M”; 3) 불연속: “₁F → ₁M” → “₂F ← ₂M”와 같이 公式으로 표시됨; 아래 그림 및 佛語 例文은 Toussaint(1980) *Pièce d'identité* in *Le Bulletin*(C.N.R.S.), p. 44에 의하고, 例文의 배치 및 韓語 例文은 필자에 의함】

*예 1) “j'appelle l'ambassade” / “I call the embassy”

2) “je suis appellé par l'ambassade” / “I am called by the embassy”



*주의 . 目的格 “je” / “I”는 主格 “je” / “I”와 그 ‘外形’이 같으면서 그 ‘同形의 方向’이 主格(→)과 異(逆)方向(←)임으로써 그 實質意味內容이 ‘目的格’이 됨: 主格과 目的格의 外形의 같음은 결코 論理와(그것을 잘못反映하는) 言語라는 두 層位의 存在理由가 되지 않음.



*주의 : 動詞形 助詞 “는”은 (代)名詞形 助詞 “는”과 그 外形이 같으면서 그 ‘同形의 方

向’이 前者(→)와 異(逆)方向(←)임으로써 그 實質意味內容이 ‘動詞形助詞’가 됨：名詞形助詞와 動詞形 助詞의 外形의 同一性은 결코 ‘言語’와 分明히 區別되는 ‘論理’ 관계로써 ‘連結’ 지어질 수 없음.

- 12) ‘命令法’이 “구체 단계의 法”(mode de parole)이라는 主張에 대해서는 Guillaume(1970), *Temps et verbe*, Paris, Champion, p. 47 참조.
- 13) 拙稿(1977/1978) 참조.
- 14) Harris에 바탕을 둔 韓語의 ‘名詞化’에 대하여는 李孟成(1968), *Nominalizations in Korean*, 語學研究 N~1, pp. 1-127 참조.
- 15) 이 “나/너 그 사람”(종/싫더 르<들>)/“그 사람 키”(크/작더 르<들>)의 예는, 소위 “二重主語” 또는 “大主語/小主語”라는 이름으로, 그 “同形의 位置”를 고려함이 없이, 한 平面 위에다 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無理한 설명을 받아 온 예로서, 그 ‘同形의 位置’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佛語(또는 기타 유사語)의 “主語人稱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元來는 ‘拒否-被拒否’의/非並置的/非반복적) ‘能動’과 ‘受動’의 ‘並置(不連續)’로서의 ‘中動’(voix moyenne/middle voice) 즉 代名<再歸>動詞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Moignet(1974), *Verbe unipersonnel et voix verbale*, pp. 275-276, 등 참조.

내 용 순 서

- ◎ 서 론—pp. 119-122
 - 본 연구의 方法論적 토대와 고유한 方法論의 定立—p. 119
 - 본 연구의 대상(佛語와 韓語의 名詞化:連結/終結化)과 “명사화”(連結/終結化)란?—pp. 120-122
 - (본 연구에서의) “명사화”(連結/終結化)와 그 것의 傳統言語學적 관점과의 차이—p. 122
- ◎ 본 론—pp. 122-151
 - “명사화”的 두 단계(“潛在적/一般形態論적 명사화”와 “實現적/具體적/意味·統辭論적 명사화”)—pp. 122-124
 - 첫째(구체적/의미·통사적) 단계—pp. 122-124
 - 둘째(잠재적/일반형태론적) 단계—p. 124
 - 그림 설명—pp. 124-125
 - 위 두 단계의 다른 도식화—pp. 126-129
 - 위 그림의 설명—pp. 127-133
 - 1) 잠재적(一般形態論적) ‘言語’ 단계(langu/tongue)—pp. 127-130
 - 2) 구체적(意味統辭論적) 言語表現 단계(dis-cours/discourse)—pp. 130-133
 - 잠재적 言語 단계(langue)에 있어서의 현대 韓語의 전체적 分析—pp. 133-141
 - 佛語의 “명사화”的 同形—p. 141
 - 佛語에서의 정리—pp. 141-142
 - 韓語에서의 정리—p. 142
 - 佛語의 副詞와 形容詞의 예와 그 정리—pp. 142-145
- 韓語의 “連結語尾構文”(從屬적/被助動)과 “終結語尾構文”(主節/助動)의, 佛語에 대응되는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pp. 145-147
 - 1) 잠재적 단계—pp. 145-146
 - 2) 구체적 단계—pp. 146-147
- 佛語의 “連結語尾構文”(從屬節/被助動)과 “終結語尾構文”(主節/助動)의, 韓語에 대응되는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pp. 147-148
 - 1) 잠재적 단계—pp. 147-148
 - 2) 구체적 단계—p. 148
- 韓語의 “名詞化”/“形容詞化”(冠形化)의 同形에서의 “被助動”(連結/主觀性/從屬節/內部적 名詞化 어미)과 “助動”(終結/客觀性/主節/外部적 名詞化 어미)의 “잠재적 단계”와 “구체적 단계”的 分析—pp. 148-150
 - 1) 잠재적 단계—pp. 148-149
 - 2) 구체적 단계—pp. 149-150
- 佛語의 名詞化/形容詞化(冠形化)에서의 “連結”(主觀性/從屬節/內部的 名詞化 어미)과 “終結”(客觀性/主節/外部的 名詞化 어미)의 “구체적 단계”와 “잠재적 단계”的 分析—pp. 150-151
 - 1) 구체적 단계—pp. 150-151
 - 2) 잠재적 단계—p. 151
- ◎ 결 론—pp. 151-160
 - 도표—pp. 152-160
 - 註—pp. 161-163

Résumé

L'Analys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forme/sens et son Application: nominalisations en français et coréen.

Hyong-Dal Pak

Cette étude se fonde sur l'*analyse non arbitraire(synaptique)* telle que: “forme⟨signe⟩(nucléaire)—matière⟨sens⟩(non nucléaire)”, et traite, de ce point de vue, du *français*, parallèlement au *coréen*, entre autres, des phrases “préconclusives”/“conclusives”, et celles de “nominalisées”/“adjectivées” du coréen, correspondant à (I) “*l'incidence de l'adverbe et l'adverbialisation des adjetifs*”, et à (II) “*le système du paradigme(QUI/QUE/QUOI)*” élaboré par Gérard Moignet (1974: *Études de Psycho-systématique Francophone*, Paris, Klincksieck, pp. 117–136/pp. 163–183), sous l'étiquette de *nominalisation* (en ce sens que la phrase au niveau de “*puissance*”, c.-à-d., *de nature de noeud zéro*(ϕ), en tant que forme⟨nucléaire⟩ ‘*encadrante*’,* est à celle au niveau d’*effet*,* c.-à-d., *de nature de noeud non zéro* (noté 1), ce que *substantif* et *adjectif* sont à l’*adverbe*: **préconclusive* et **conclusive* au sens *guillaumien* du terms: Cf.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Paris/Québec, 1973, p. 198).

Nous avons déjà appréhendé le stade *guillaumien*, en le nommant “*mécanisme synaptique non analysé(sémantico-syntaxique⟨discontinu⟩; plus précisément, pseudo-langue/discours)*”, où la *synapse(incidence)* “ $F(\text{orme})=M(\text{atière})$ ” se confond(s’alterne) avec celle de “ $M(\text{atière})=F(\text{orme})$ ” (${}^{\circ}1/2$: *ordre synaptique*; $=$: *juxtaposé/discontinu*; \rightarrow : *prospectif* ou *continu*/ \leftarrow : *rétrospectif* ou *discontinu*), et en le distinguant du “*mécanisme synaptique (non arbitraire) analysé(morphologico-général ⟨continu⟩)*”, où la *synapse* “ $F \xrightarrow[1 \longleftrightarrow 2]{} M$ ” ne se confond pas avec celle de “ $F \xleftrightarrow[1 \longleftrightarrow 2]{} M$ ” (\leftrightarrow : *analysé/continu*) (Cf. mon article: *Personne et verbe: vers une théori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nucléaire ⟨forme⟩—non nucléaire ⟨matière⟩”*, *Language Research* Vol. 28, No. 1,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 65).

En s'appuyant sur cette *dichotomie cohérente*, l'une *continue/puissancielle*, l'autre *discontinue/actuelle*, le *contenu matériel* de l'*ordre synaptique* de ce dernier étant à même d'être déterminé par le *procédé de discontinuation*, et chacune divisée en ‘*grand*⟨noté $\widehat{1}/\widehat{2}$ ⟩ et *petit* ⟨noté (1)/(2)/(3)⟩’, *système*, c.-à-d.,

N.B.: “.” Mécanisme Morphologico-Général / Mécanisme Sémantico-Syntaxique
indique Continuité formelle/sémantique / Discontinuité formelle+sémantique
‘continu’ $\overset{1}{_1F \cdot _2F} \quad | \quad (1) \underset{1 \rightarrow 2}{_1F \cdot _2F \leftrightarrow _1M \cdot _2M} + \underset{1 \rightarrow 2}{\{ _2F \cdot _1F \leftrightarrow _2M \cdot _1M \}} \quad (3) \quad | \quad \overset{1}{_2F \cdot _1F}$
; “/” : $\overset{1}{\downarrow \uparrow} \quad | \quad (2) \underset{1 \leftarrow 2}{_1F / _2F \leftrightarrow _1M / _2M} + \underset{1 \leftarrow 2}{\{ _2F / _1F \leftrightarrow _2M / _1M \}} \quad (2) \quad | \quad \overset{1}{\downarrow \uparrow} \Rightarrow$
‘discontinu’. $\overset{2}{_1M \cdot _2M} \quad \{ (3) \underset{1 \rightarrow 2}{_1F / _2F \leftrightarrow _1M / _2M} + \underset{1 \rightarrow 2}{\{ _2F / _1F \leftrightarrow _2M / _1M \}} \quad (1) \} \overset{2}{_2M \cdot _1M}$

$$\Rightarrow \overset{1}{\overset{2}{_1F / _2F}} \quad \left\{ \begin{array}{l} (1) \underset{1 \rightarrow 2}{_1M \cdot _2M = _1F / _2F} + \underset{1 \rightarrow 2}{\{ _2M \cdot _1M = _2F / _1F \}} \quad (3) \\ (2) \underset{1 \leftarrow 2}{_1M / _2M = _1F / _2F} + \underset{1 \leftarrow 2}{\{ _2M / _1M = _2F / _1F \}} \quad (2) \end{array} \right\} \overset{2}{_2F / _1F}$$

$$\Rightarrow \overset{1}{\overset{1}{_1M / _2M}} \quad \{ (3) \underset{1 \rightarrow 2}{_1M / _2M = _1F / _2F} + \underset{1 \rightarrow 2}{\{ _2M / _1M = _2F / _1F \}} \quad (1) \} \overset{1}{_2M / _1M}$$

, les deux sujets “(I)” et “(II)” ci-dessus peuvent être représentés schématiquement et de la même façon comme suit:

—*N.B.: “-C” : préconclusif / “+C” : conclusif; “-Ct” / “+Ct” : préconclusif encadrant / conclusif encadrant; “-Cé” / “+Cé” : préconclusif encadré / conclusif encadré; “...(0)...” : (terme) préconclusif / “...(0)...” : (terme) conclusif*) —

(A) Mécanisme Synaptique Morphoogico-Général (Petit Système) (Français)

Sujet(I): “*L’Incidence de l’Adverbe et l’Adverbialisation des Adjectifs*”

Exemple: (1) “Pierre écoute attentif” / (2) “Pierre écoute attentivement” / (3) “Pierre attend vainement”

(1) Synapse ₁ Continue

Observation: “...attentif φ...” / “...écoute φ”

$$\underset{(1)}{\overset{1}{_1F (-Ct: ...φ...) \leftrightarrow _1M (-Cé: ...attentif...)}} \Leftrightarrow \underset{(2)}{\overset{2}{_2F (+Ct: ...φ) \leftrightarrow _2M (+Cé: ...écoute)}};$$

(2) Synapse ₂ Continue

Observation: “...écoute φ” / “...attentive ment...”

$$\underset{(1)}{\overset{1}{_1F (+Ct: ...φ) \leftrightarrow _1M (+Cé: ...écoute)}} \Leftrightarrow \underset{(2)}{\overset{2}{_2F (-Ct: ...ment...) \leftrightarrow _2M (-Cé: ...attentive...)}};$$

(3) Synapse Discontinue(juxtaposée/sémantique)

Observation: “...vaine ment...” / “...attend φ”

$$\underset{(1)}{\overset{1}{_1F (-Ct: ...ment...) \leftrightarrow _1M (-Cé: ...vaine...)}} \Leftrightarrow \underset{(2)}{\overset{2}{_2F (+Ct: ...φ) \leftrightarrow _2M (+Cé: ...attend)}}.$$

(Coréen)

Dans le cas du *coréen*, on peut remplacer les termes *français* par ceux du *coréen* de la même façon que ci-dessus:

- (1) **Observation:** utiliser “F(–Ct:...ke⟨pour que⟩..., etc./+Ct: ...ke⟨suffixe impératif: abaissement moyen⟩, etc.)” et “M(–Cé:...mòk⟨mange⟩..., etc./+Cé: ...ka⟨va⟩, etc.)”;
- (2) **Observation:** utiliser “F(+Ct: ...ke⟨suff. impératif: abaissement moyen⟩, etc./–Ct:...ke ⟨pour que⟩..., etc.)” et “M(+Cé: ...ka⟨va⟩, etc./–Cé: ...mòk⟨mange⟩..., etc.)”;
- (3) **Observation:** utiliser “F(–Ct: ...ke⟨pour que⟩..., etc./+Ct: ...ra⟨suff. impératif: abaissement intime⟩, etc.)” et “M(–Cé:...mòk⟨mange⟩..., etc./+Cé:...ka⟨va⟩, etc.)”

(Grand Système)

Dans les deux langues, c'est la synapse en tant que “petit système(⟨1⟩ et ⟨2⟩)” ci-dessus, considéré comme “continu” (→), *encadrant* la même synapse(⟨1⟩ et ⟨2⟩) considérée comme “discontinu” (←), c.-à-d., “(3)” ci-dessus.

(B) Mécanisme Synaptique Sémantico-Syntaxique

(Petit Système)

(Français)

(1) Synapse 1 Continue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3)”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 ...attend/–Ct: ...vain...)” et “M(+Cé:...ϕ/–Cé: ...ment...)”.

$$\overset{1}{_1F(+Ct: \dots \text{attend})} = \overset{1}{_1M(+Cé: \dots \phi)} \xrightarrow[1]{(1)} \overset{2}{_2F(–Ct: \dots \text{vain...})} = \overset{2}{_2M(–Cé: \dots \text{ment...})};$$

(2) Synapse 2 Continue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2)”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attentive.../+Ct:...écoute)” et “M(–Cé: ...ment.../+Cé: ...ϕ)”.

$$\overset{1}{_1F(–Ct: \dots \text{attentive...})} = \overset{1}{_1M(–Cé: \dots \text{ment...})} \xleftarrow[1]{(1)} \overset{2}{_2F(+Ct: \dots \text{écoute})} = \overset{2}{_2M(+Cé: \dots \phi)};$$

(3) Synapse Discontinue(Juxtaposée)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1)”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dis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 ...écoute)/–Ct: ...attentif...)” et “M(+Cé: ...ϕ/–Cé: ...ϕ...)”.

$$\begin{array}{c} {}_1F(+Ct: \dots\text{écoute}) = {}_1M(+Cé: \dots\phi) \\ \xrightarrow[1]{(1)} \qquad \qquad \qquad \xleftarrow[2]{(2)} {}_2F(-Ct: \dots\text{attentif...}) = {}_2M(-Cé: \dots\phi...) \end{array}$$

(Coréen)

Dans le cas du *coréen*, on peut remplacer les termes *fiançais* par ceux du *coréen* de la même façon que ci-dessus:

(1) **Observation:** utiliser “F(+Ct: ...ka⟨va⟩, etc./...mòk⟨mange⟩..., etc.)” et “M(+Cé: ...ra ⟨suff. impératif: abaissement intime⟩, etc./-Cé: ...ke⟨suff. impératif: abaissement moyen⟩..., etc.)”;

(2) **Observation:** utiliser “F(-Ct: ...mòk⟨mange⟩..., etc./+Ct: ...ka⟨va⟩, etc.)” et “M(-Cé: ...ke⟨pour que⟩..., etc./+Cé: ...ke⟨suff. impératif: abaissement moyen⟩, etc.)”;

(3) **Observation:** utiliser “F(+Ct: ...ka⟨va⟩, etc./-Ct: ...mòk⟨mange⟩..., etc.)” et “M(+Cé: ...ke⟨suff. impératif: abaissement moyen⟩, etc./-Cé: ...ke⟨pour que⟩..., etc.)”.

(Grand Système)

Voir la remarque dans “Grand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 ci-dessus.

(A) Mécanisme Synaptique Morphologico-Général

(Petit Système)

(Français/Coréen)

Sujet (II): “Le Système du Paradigme(QUI/QUE/QUOI)” correspondant à (*Nominalisation/Adjectivation*) en *Coréen*

On peut remplacer chaque terme de la formule (<1>/<2>/<3>) ci-dessus (“voir “Petit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 ci-dessus) par ceux du type (QUI/QUE/QUOI) *français* et du type (*Nominalisation/Adjectivation*) *coréen*, de la même manière que dans le cas de “(I)” ci-dessus(*N.B: pour indiquer *l'ordre*(*le degré*) *synaptique sémiologique*, on utilisera “**caractère gros**”):

(1) **Observation:** utiliser “F(-Ct: ...QUI.../+Ct: ...QUOI)” et “M(-Cé: ...QUI.../+Cé: ...QUE)”,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kòs⟨nominalisant⟩.../+Ct: ...n⟨adjectivant⟩)” et “M(-Cé: ...na⟨je⟩/nò⟨tu⟩..., etc./+Cé: ...kï⟨il⟩, etc.)”;

(2) **Observation:** utiliser “F(+Ct: ...QUE/-Ct: ...QUI...)” et “M(+Cé: ...mange/-Cé: ...mange...)”,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n⟨adjectivant⟩/-Ct: ...kòs⟨nominalisant⟩...)” et “M(+Cé: ...mòk⟨mange⟩/-Cé: ...mòk⟨mange⟩...)”;

(3) **Observation:** utiliser “F(-Ct: ...QUI.../+Ct: ...QUE)” et “M(-Cé: ...mange.../

+Cé: ...mange)",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kòs⟨nominalisant⟩.../+Ct: ...n⟨adjectivant⟩)" et "M(-Cé: ...mòk⟨mange⟩...)/+Cé: ...mòk⟨mange⟩)".

(Grand Système)

Voir la remarque dans le "Grand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 du type "(I)" ci-dessus.

(B) Mécanisme Synaptique Sémantico-Syntaxique

(Petit Système)

(Français/Coréen)

Ce "Petit Système" peut se formuler, suivant le "Petit Système" du type "(I)" ci-dessus, par le "*procédé de discontinuation*", c.-à-d., en *discontinuant* le "Petit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 ci-dessus:

(1)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3)"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dis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 ...mange/-Ct: ...mange...)" et "M(+Cé: ...QUE/-Cé: ...QUI...)",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mòk⟨mange⟩/-Ct: ...mòk⟨mange⟩...)" et "M(+Cé: ...n⟨adjectivant⟩/-Cé: ...kòs⟨nominalisant⟩...)" ;

(2)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2)"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dis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 ...mange.../+Ct: ...mange)" et "M(-Cé: ...QUI.../+Cé: ...QUE)",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mòk⟨mange⟩.../+Ct: ...mòk⟨mange⟩)" et "M(-Cé: ...kòs⟨nominalisant⟩/+Cé: ...n⟨adjectivant⟩)" ;

(3) **Observation:** c'est la *synapse discontinuée* de "petit système(1)" ci-dessus, c.-à-d., celle douée de contenu sémantique discontinu, et obtenue en utilisant "F(+Ct: ...QUE/-Ct: ...QUI...)" et "M(+Cé: ...QUOI/-Cé: ...QUI...)", correspondant au coréen: "F(+Ct: ...kì⟨il⟩, etc./-Ct: ...na⟨je⟩/nò⟨tu⟩..., etc.)" et "M(+Cé: ...n⟨adjectivant⟩/-Cé: ...kòs⟨nominalisant⟩...)" .

(Grand Système)

Voir la remarque dans le "Grand Système Morphologico-Général" du type "(I)" ci-dessus.